# 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7년 6월 30일 금요일 제1678호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 코리안리·11개 보험사 '항공보험 요율' 담합

**119헬기 보험료율 등 4건 적발**
**공정위, 8월 과징금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보험 요율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와 11개 손해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관련기사 8면

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전원회의에서 항공보험 담합에 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해당 기관에 전달한 문서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 의견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보사들은 23일까지 해명하는 내용의 의견서(소명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은 심사보고서에 손보사들이 보낸 의견서를 첨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헬기보험 요율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코리안리와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 등 국가 기관이 헬기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사들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수년째 똑같은 보험 요율을 제공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11개 손보사와 코리안리에 대해 119헬기 보험 요율 공동 담합, 재보험 협의 요율 독점 등 4건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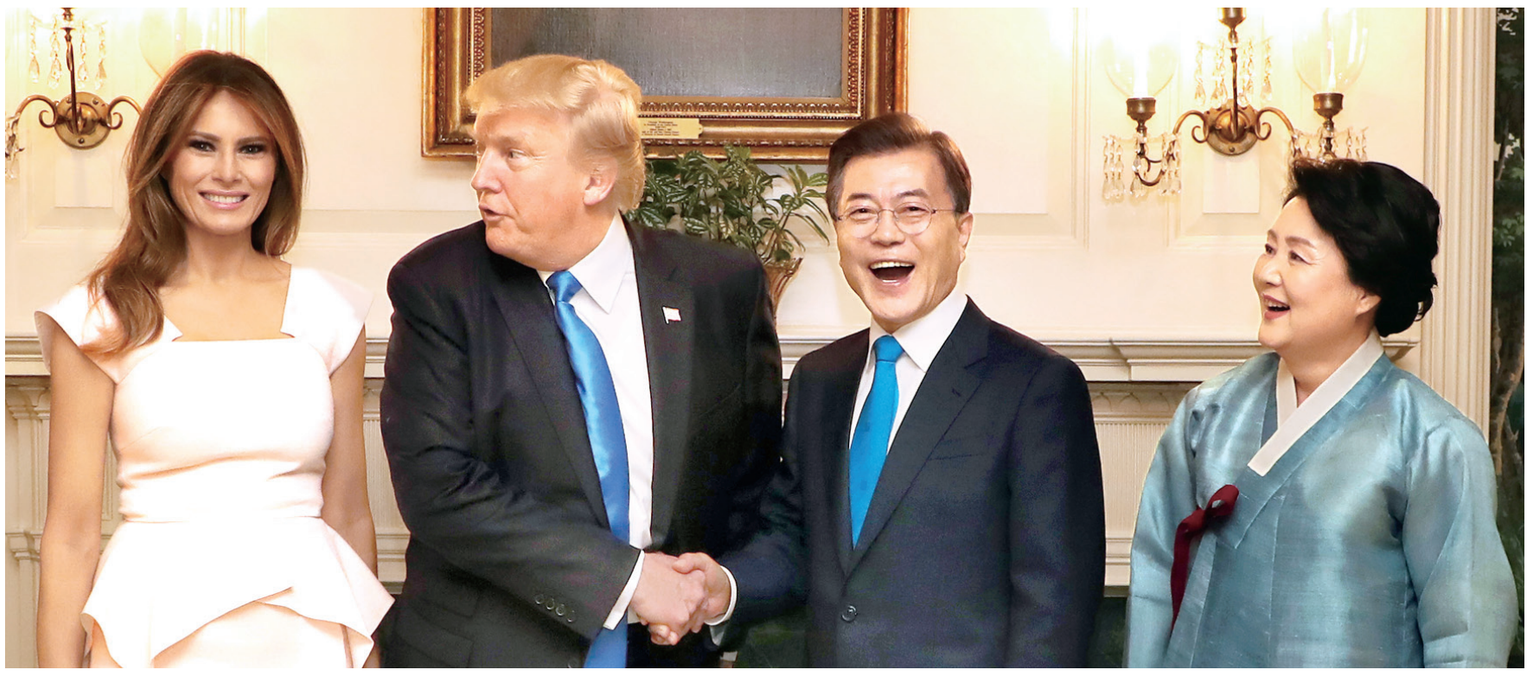
공정위는 11개 손보사가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제공하는 똑같은 협의 요율을 쓰는 것을 두고 양측 간 담합을 벌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종 제재 결정을 내리는 전원회의는 8월 말께 열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보험사들이 보낸 의견서를 취합·정리하고, 피심인(보험사) 설명회, 상임위원 설명회까지 마친 8월 말께 전원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항공보험의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손보사들은 이미 행정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징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패소해도 최선의 대응을 했다고 주주들에게 할 말도 생기는 만큼 보험사들이 100%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 트럼프 "文대통령과 한국 국민 존경"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을 바라보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자들을 바라보며 포토세션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부부동반 백악관 상견례·만찬서 북한·무역문제 등 논의**
**시종일관 화기애애…김정숙·멜라니아 '내조외교'도 관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미 동부 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처음 만나 상견례와 환영만찬을 했다. 이날 만찬에서 양 정상은 이례적으로 나란히 앉아 북한 문제와 무역 등을 주제로 논의하며 예정시간보다 35분 늘어난 '125분' 동안 얘기를 나눠 서로 신뢰와 우의를 쌓았다. ▶관련기사 3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부부 공식 환영만찬에서 "문 대통령과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부인이 백악관을 방문해 줘 영광"이라며 "문 대통령과 북한, 무역, 그리고 여러 복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한국 국민을 매우 존경한다"며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엄청난 승리였고 나는 예상했기 때문에 크게 축하드리고 싶다"고 환대했다.

관심이 쏠렸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악수는 돌출행동 없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현관 앞에서 문 대통령 부부를 기다리다 문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4초간 악수를 하며 밝은 표정으로 환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에게 손을 뻗어 자리를 안내하는 포즈를 취하며 친근감을 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도 김 여사와 가벼운 인사를 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이번 환영만찬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백안관에서 외국 정상 부부와 공식적으로 함께하는 건 처음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환영만찬은 문 대통령이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으로 방미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State Visit)'으로 예우를 표한 것으로 깊은 신뢰와 환대의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빈 방문이나 그에 준하는 외국 정상 방문일 때 환영만찬은 필수적 의전 절차로 포함된다.

이날 만찬에는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내조 외교도 펼쳐 관심을 끌었다. 정상회담 전 환영만찬은 양국 간 신뢰와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자리로 정상회담에서의 민감한 의제를 부드럽게 풀 수 있는 전초전으로 볼 수 있다.

만찬 후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관계 발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의구심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 해소시켰다.

신동민 기자 lawsdm@

## 내주 G20서 韓·美·日 정상회담

**獨 함부르크서…北核·미사일 등 협력 강화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6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 간의 만찬을 겸한 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3국 정상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담에서 북핵·미사일 문제와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5, 6일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초청으로 독일 베를린을 공식 방문해 한독 정상회담을 한 후, 7일과 8일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간 정상회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해 각국 정상과 별도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이익 늘 땐 쑥↑·손실 날 땐 찔끔↓**

## 기업 사기 꺾는 '법인세 공식'

**정부 '부자증세' 공식화하지만**
**대기업, 現 법인세 구조에 불만**
**"비용절감 노력 도움 되지 않아"**

대기업의 이익이 늘 때는 법인세가 급증하는 반면, 손실이 나면 감액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증세 등 세제 개편 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대기업들은 특히 비용절감 노력이 법인세 감면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현행 법인세 구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30일 이투데이가 2016년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의 최근 3년간(2014~2016년)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은 7조3000억 원(13.1%) 늘고 법인세는 4조2365억 원(34.1%) 증가했다. 법인세 납부 상위 10개 기업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경제·재정수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이익이 늘어날 때와 줄어들 때 법인세의 증가 및 감소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익이 늘 때 법인세가 증가하는 비율은 이익이 줄고 손실이 커질 때 법인세가 줄어드는 비율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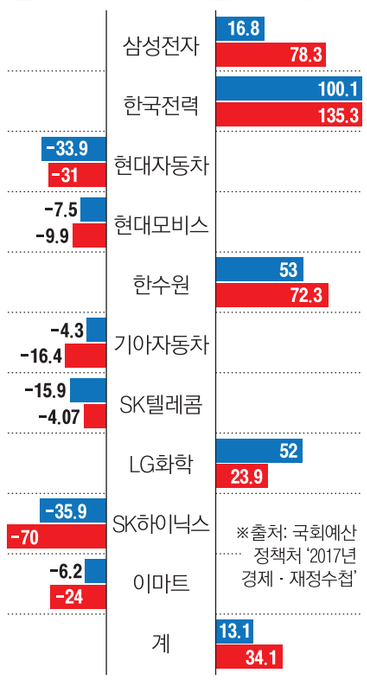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이익이 3년간 16.8%(4조2156억 원) 늘었는데 법인세는 무려 78.3%(3조5069억 원) 증가했다. 반면 현대차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33.9%(-2조6595억 원) 줄어들 동안, 법인세는 31%(-7144억 원) 감소에 그쳤다.

SK텔레콤은 3년간 영업이익이 15.9%(-2894억 원) 쪼그라들었는데, 법인세 감소액은 4.07%(-185억 원)에 불과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영업이익이 100.1%(6조2145억 원) 증가할 동안, 법인세는 135%(1조9348억 원) 늘었다. 그 밖에 한국수력원자력은 3년간 영업이익이 53%(1조3328억 원) 늘어났고, 법인세는 72.3%(3350억 원) 증가했다.

기업들은 소득공제액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비용을 줄어도 과세표준에 큰 영향이 없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송영록 기자 syr@

**법인세 상위 10대 기업 영업이익 및 법인세액 증감률(연결기준)**
(단위: %, 2014년과 2016년 비교)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 경제·재정수첩'


2017 상반기 히트상품
기술력·브랜드 불황도 이겼다
▶ 19~21



정기선 전무 ▶9


카림 라시드 ▶12

## 유럽 '돈풀기' 끝나나…'테이퍼링' 공포에 덜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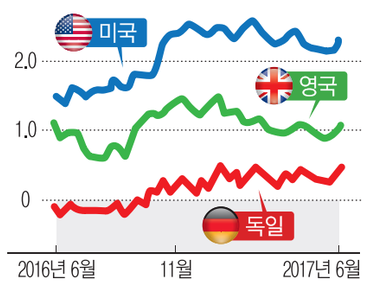
**英·獨·佛 등 국채금리 급등**
**美·아시아 금리도 동반상승**

글로벌 채권시장에 유럽발(發)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긴축발작)' 공포가 몰려들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최근 포르투갈에서 이틀간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양적완화와 사상 최저 수준인 저금리 시대를 끝내고 긴축으로 돌아설 것임을 시사하면서 유럽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국채 금리가 일제히 큰 폭으로 뛰면서 미국과 아시아, 중남미 등도 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영국 국채인 길트(Gilt) 10년물 금리는 최근 이틀간 12bp(bp=0.01%포인트) 이상 올랐다.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단위: %)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건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에 나섰다는 의미다. 채권시장에서 비롯된 시장의 공포는 증시로도 전염돼 범유럽 증시 벤치마크인 FTS 유로퍼스트300지수가 이날 1.4% 떨어져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뉴욕증시도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대표적 '비둘기파' 인사로 알려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포럼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리플레이션(Reflation·적당한 물가상승)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며 월 600억 유로(약 78조2500억 원)에 달하는 채권 매입 축소를 시사한 것이 테이퍼 탠트럼의 촉매제가 됐다.

그동안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장기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고자 막대한 양의 채권을 사들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미 긴축 모드로 접어들고 다른 중앙은행이 이 뒤를 따를 것임을 시사하면서 채권시장을 움직여왔던 큰손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데이비드 도나베디안 애틀란틱트러스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유럽에서 미국이 2013년에 그랬던 것처럼 테이퍼 탠트럼을 거칠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이슈 & 인물 ▶15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입자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의 말이다. 김 원장은 26년간 국토연에서 국토발전 미래 어젠다와 정책방향 등을 연구한 '국토통'이다. 김 원장은 "사회간접자본을 줄이더라도 공적 임대주택은 복지정책으로 보고 획기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 “증권+금융+IT ‘삼각편대’ 추가상승 주도”

## 이제는 ‘2400시대’… 새역사 쓰는 코스피

**지난해 11월 말 이후 7개월째 상승랠리**
**어제 최고가 경신 후 2380線 숨고르기**

**증권株, 증시 호조 따른 실적상승 지속**
**금융株, 글로벌 금리 인상 맞춰 개선세**
**IT株, 삼성전자 등 대형주 강세 이끌어**
**“상승여력 충분…2500線 돌파도 가능”**



2400선까지 급등했던 코스피가 뉴욕증시의 기술주 급락 영향에 2380선까지 하락하며 장을 열었다. 30일 오전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2.08포인트 내린 2383.58을 나타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코스피가 ‘2400포인트’라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 지난 6년간 1900~2200 박스권에 머물렀던 악몽을 떨치고, 2006~2007년 상승 랠리 재현이 기대되는 확실한 신호탄을 쏜 셈이다. 증권가는 2분기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코스피 상승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낙관했다.

29일 코스피지수는 장중 2402.80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가를 다시 썼다. 28일 한 박자 쉬어 가는 흐름을 보인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 매수에 힘입어 상승세로 전환했다. 금융투자업계는 홀로 1200억 원어치나 담았다. 반면, 개인은 매도 우위 장세였다.

작년 11월 말 이후 7개월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코스피지수는 줄곧 플러스(+)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4월에는 2200선을, 5월에는 2300선을 지나 6월에도 외국인 중심의 수급 호조에 2400선을 넘어섰다. 6월 한 달간 외국인과 개인은 각 1조7000억 원, 1조2000억 원의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점 돌파 다음 날인 30일 코스피는 전날 대비 13.51포인트(0.56%) 내린 2382.15로 하락 출발, 한 박자 쉬어 가는 흐름을 보였다. 미국 뉴욕증시가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 등 기술주들의 급락으로 하락 마감한 데다, 코스피지수가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같은 코스피 조정 장세는 단기에 그칠 전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2분기 어닝시즌 기대감이 여전하고 상승여력도 상당 부분 남아 있는 만큼, 코스피 상승 가도에 편승하라고 조언했다.

최근의 코스피 신기록 행진은 △증권 △금융 △정보통신(IT)주로 이어진 동반 상승에 기인했다. 증권주의 경우 증시 호조에 따른 실적 호조 전망에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3분기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말 기준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6조7000억 원이다.

김예은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주는 거래대금 (증가)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개별 이슈도 있었고 전반적인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3조 원대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한다고 밝혔다.

금융주 역시 글로벌 금리인상기에 발맞춰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이 6월 한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후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데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KB금융과 신한지주, 우리은행 등 은행주들의 금리 영업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개선세가 지속할 것이란 기대가 팽배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IT주들의 강세 또한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끌 전망이다. 특히 내달 7일 2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는 3분기까지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에 기반해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분석된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지수는 사상 최고치이지만 이익이나 국내총생산(GDP),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코스피지수는 여전히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며 코스피 상단밴드로 2500선을 제시했다. 코스피 주가이익비율(PER)이 9.9배에 불과한 만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분석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 데이터 뉴스 Dat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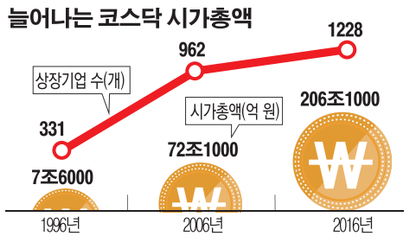
### 코스닥, 출범 21주년… 시총 219조 ‘28배’·거래대금 1646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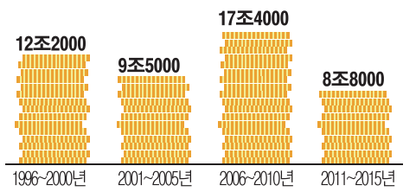
7월 1일 출범 21주년을 맞이하는 코스닥 시장의 규모가 첫해보다 28배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전날 기준 219조 원을 기록했다. 창립 첫해인 1996년 7조6000억 원과 비교하면 21년 동안 28배 성장한 것이다.

일평균 20억 원에 불과하던 거래대금은 이달 3조3000억 원으로 1646배 증가했다. 상장기업 수는 첫해 331개에서 1228개로 늘어났다.

코스닥은 1990년대 IT 벤처 붐에 힘입어 급속도로 몸집을 불렸다. 역대 최고점은 2000년 3월 10일 기록한 2834.40이다. 그러나 ‘벤처 거품’이 터지면서 같은 해 말 525.80까지 추락했다. 이후 500~600선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코스닥은 2015년 7월 780선까지 상승했지만 다시 밀려났다.




전날 코스닥 지수는 668.00에 마감, 올 들어 코스닥 지수 상승률은 5.79%를 기록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코넥스, 출범 4주년… 시총 4.2조 ‘8배’·거래대금 3.2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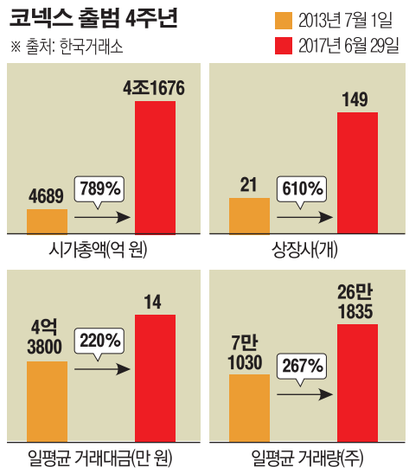
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이 출범 4년 만에 약 8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1일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은 전날 기준 4조1676억 원을 기록했다. 2013년 7월 1일 출범 당시 4689억 원과 비교하면 788.8% 증가한 규모다.

코넥스 시장 시총은 지난해 9월 5조1880억 원으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으나 규모가 큰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면서 다소 감소했다.

출범 첫해 4억3800만 원이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현재 14억 원으로 3.2배 불어났다. 상장사 숫자는 21개에서 149개로 늘었다.

그동안 코넥스에서 23개 기업이 코스닥으로 옮겨 갔다. 2014년 7월 아진엑스텍이 처음 코스닥에 입성했고, 같은 해 메디아나, 테라셈, 랩지노믹스, 하이로닉, 아이티센 등 6개 기업이 코스닥으로 향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개와 8개 기업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완료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부자는 증세·서민은 감세” 하반기 ‘세제개혁’ 나선다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 가칭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세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총 178조 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 소요 재원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재정개혁을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함에 따라 올해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지원과 납세자 서비스 강화 등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각계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 조세개혁 특위 설치… 법인세 인상 등 논의 재정개혁 통해 178조 소요재원 마련키로

위원회는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필요한 조세개혁 방향을 마련할 때까지”라고 말함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것이다. 조세개혁 방향도 소득 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간 (전 정부들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 재원도 조세개혁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의 구조조정과 투자 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 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소요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하겠다”며 “다만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 따라 올해는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제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초과한 증가분의 10% 공제율(대기업은 5%)을 상향 조정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 재개나 취업하는 경우 소액 체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영세 음식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인상하는 안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남현 기자 kimnh21c@


# JB금융그룹 고객정보 취급방침 안내

J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JB금융그룹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5.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JB금융그룹은 (주)JB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Ⅰ.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의 상거래와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 · 금액 및 한도 등
   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 부도 · 대지급이나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액 및 발생 · 해소의 시기 등
   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의 재산 · 채무 ·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등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고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 · 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마.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 Ⅱ. 금융지주회사 등의 상호 및 업종

JB금융그룹의 회사는 (주)JB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주)전북은행 (은행), (주)광주은행 (은행), JB우리캐피탈(주) (여신전문금융업), 제이비자산운용(주) (자산운용업) 입니다.

### Ⅲ. 고객정보의 제공처

JB금융그룹의 회사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주)JB금융지주, (주)전북은행, (주)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주), 제이비자산운용(주)입니다.

### Ⅳ.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JB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 ·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 · 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⑦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연1회 이상 통지하는 등 고객통지의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⑧ 위법 ·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 · 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 · 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JB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주)전북은행** 고객정보관리인, **(주)광주은행** 고객정보관리인, **JB우리캐피탈(주)** 고객정보관리인, **제이비자산운용(주)** 고객정보관리인

JB금융그룹은 그룹사 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JB금융지주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금융그룹

# 文 "사드배치 번복 의구심 버려도 좋다… 韓美 FTA 지지를"

## 美의회 지도부와 면담 "정부간 합의 존중, 절차적 정당성은 필요" 강조

## "FTA, 양국의 이익 균형 맞아… 개성공단 재개 지금 단계에서 힘들다"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지도부를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번복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에 확산돼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절차적·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기존 입장은 재확인해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호혜적 효과를 언급하면서 의회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상·하원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한 자리에서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며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며, 그만큼 사드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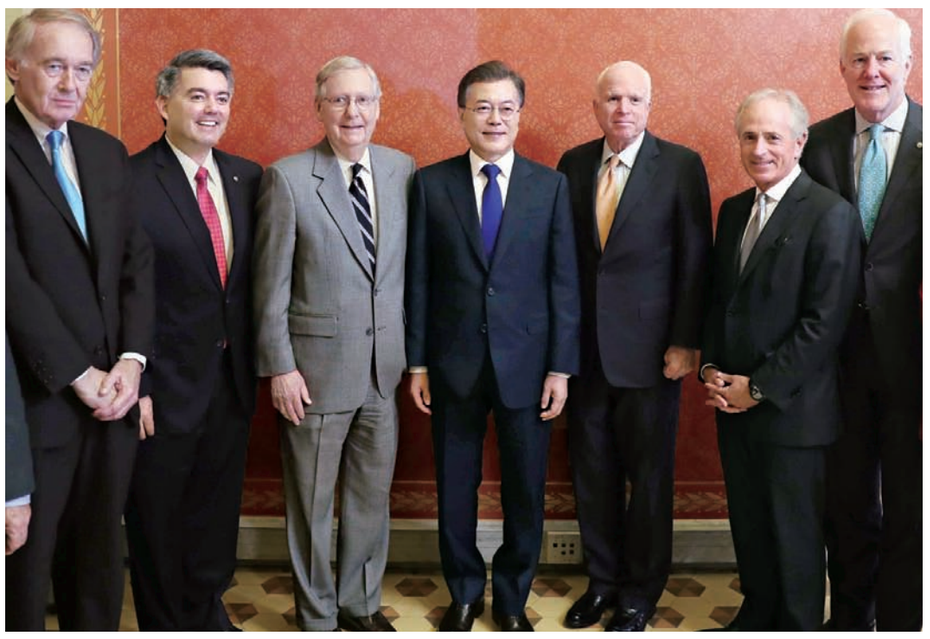
이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이제 한·미는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세계 교역액이 줄었지만 한·미 교역액은 느는 등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상품 교역에서 한국의 흑자가 많다는 건데, 거꾸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의 흑자가 많고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대(對) 한국 투자보다 훨씬 많다"며 "전체를 종합하면 이익의 균형이 맞다"고 피력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선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며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국제적 공조의 틀 안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의 촛불혁명은 미국이 한국에 이식해준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운 것이다"며 "이번 방미가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항구적 평화를 끌어내는 위대한 동맹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스트롬 서몬드 룸에서 미치 매코넬(왼쪽 세번째) 공화당 원내대표, 존 매케인(오른쪽 세번째) 공화당 군사위원장 등 미 상원 지도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 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 대통령전용기 타고 '귀국'

## 한국전쟁 때 미국으로 불법 유출



6·25 때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문정왕후어보(御寶·사진 왼쪽)'와 '현종어보'가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한국으로 돌아간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문화적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주미 대사관은 30일(현지시간) 오전 11시 워싱턴DC 소재 대사관에서 한·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인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환수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문정왕후어보는 명종 2년(1547년)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에게 '성렬대왕대비(聖烈大王大妃)'라는 존호(尊號·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린 것을 기념해 제작됐다. 가로·세로 각 10.1㎝, 높이 7.2㎝ 크기로 금으로 제작됐으며, 거북 모양 손잡이가 달렸다. 현종어보는 효종 2년(1651년) 임금의 맏아들인 현종이 왕세자로 책봉됐을 때 제작돼 '왕세자지인(王世子之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재질은 옥이며, 문정왕후어보보다 약간 더 크다.

문정왕후어보는 한국전쟁 당시 불법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 소장자의 판매로 LA 카운티박물관이 소장해 왔다. 문화재청은 2013년 이 어보가 도난품으로 판단하고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수사를 요청했다. 진품 확인 및 법적 소송 절차 등을 거쳐 반환이 최종 결정됐다. 방미 수행단 관계자에 따르면 두 어보는 오는 1일 귀국하는 문 대통령의 전용기 편으로 국내에 들어간다.

반환 형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에게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어보를 직접 전달하면 빅 이벤트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방미 수행단에 포함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보 반환 과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khlee@

# 訪美 기업들, 美에 5년간 40조 '통 큰 투자'

## 현지공장 설립·M&A에 15조… 원유·가스·항공기 도입 등 25조

삼성전자와 LG전자, SK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40조 원이 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한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52개 기업이 밝힌 향후 5년간 미국시장 투자예상 금액은 총 128억 달러(약 14조 6000억 원)로 집계됐다. 미국 현지 공장설립, 생산설비 확충, R&D투자, 현지기업 M&A 등이 주를 이룬다. 투자 외에 LNG·LPG 구매, 추가 노선망 확충을 위한 항공기 구입 등 약 5년간 총 224억 달러(약 25조5000억 원) 규모의 구매도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사우스케롤라이나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억8000만 달러 규모의 가전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15억 달러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LG전자는 2019년까지 테네시주에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가전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또 뉴저지주에 3억 달러를 투자해 2019년까지 신사옥을 건립한다.

SK는 향후 5년간 에너지 분야 등에 최대 4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현대차는 5년간 총 31억 달러를 투자한다. 두산그룹은 미국 자회사인 두산 밥캣, 두산퓨얼셀아메리카 등을 통해 총 7억9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CJ그룹은 현지 기업 M&A 등에 총 10억5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 224억 달러(약 25조5000억 원)를 들여 청정에너지, 항공기 등을 구매할 계획이다. SK는 2020년부터 미국산 LNG, LPG를 신규 도입한다. 규모는 매년 18억 달러(최대 35억 달러) 수준이다. GS칼텍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4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들여올 예정이며, 자회사인 GS EPS를 통해 셰일가스를 2019년부터 향후 20년간 연 60만 톤 수입할 계획이다.

LS도 33억5000만 달러 규모의 전기동 원료 동정광과 LPG를 구매할 예정이다. 한진은 2023년까지 102억 달러에 달하는 보잉항공기 50대를 추가로 구매해 노선망 확충에 나선다. 또 CJ그룹은 향후 5년간 미국에서 CJ제일제당 식품·바이오부문 생산공장 신규 증설, CJ대한통운·CJ CGV, 등 계열사의 현지 기업 M&A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영록 기자 syr@



# 정부조직법 심사… 얼마나 수정될까

**국회 내달 4일 전체회의 열고 심의**
**인사 청문·추경에 통과 진통 예고**
**野, 국토부 하천 관리 이관 반대**
**국민안전처 장차관 격상도 이견**
**34건 법안 계류… 심사 일정 촉박**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자마자 정부조직법안 심사에 착수, 임시회 2주 동안 논의를 벌인 뒤 처리를 시도한다.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 체제로 바꾸려는 여당안이 야당과의 논의를 거치면서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안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는 7월 임시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 120명이 공동 발의한 정부조직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간다.

법안 내용이 거의 모든 상임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선 상임위별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안행위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12일부터는 소위를 가동해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이 과정을 거쳐 17일 안행위에서 정부조직법안을 통과시키고, 7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날인 18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의 원내대표들은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6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합의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일정이 밀리면서 심사 일정이 다소 촉박해졌다. 이 계획대로라면 12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정부조직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40여 일 만에 처리되는 셈이다.

안행위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 측은 "새 정부가 조직은 갖춰서 일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인식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일정이 짧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의 관계가 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 문제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로 삐걱대는 데다, 정부조직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존재해 법안 심사과정 및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윤 의원 측은 "공청회를 거친 뒤 정부조직법안 관련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당 일각에선 개정안 중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질 개선을 위한 감시·감독 업무를 맡아왔던 환경부에서 수량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국가보훈처에 장관과 차관을 두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20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번에 병합 심사를 해야 해, 심사 시간이 더욱 빠듯해질 가능성도 크다. 30일 오전 현재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안을 빼고도 34건의 법안이 계류 상태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안행위 관계자는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거나 개편하는 내용 등을 공통적으로 담은 법안만 10여 건"이라면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모태로 하되,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다른 의원들 법안을 묶어 심사하면서 타임테이블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29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입사특혜 의혹관련 제보 내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 '조작' 논란에 黨 '존폐론' 불거지는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단독범행이냐, 아니냐 떠나 잘못된 일이지만 지금 당장 판단은 성급"**
**일부 당원들은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
**광주·전남 지역 지자체장도 불만 터트려**

국민의당이 '혼란의 늪'에 빠졌다. 이른바 '문준용 제보 조작' 혐의로 당원 이유미 씨가 29일 검찰에 구속됐다. 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대선주자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점점 커져만 가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 '존폐론'마저 불거지고 있다. 이 가운데 안 전 대표가 이르면 30일 조작사건과 관련해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중진그룹인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단독범행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국민의당과 관계돼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도부 개입 논란에 대해서 "지금 사실 관계에 대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가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과 검찰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사과의 뜻은 밝히면서도 "지금 당장 판단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 개입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중진들의 생각과는 달리 당 안팎에선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움직임에 나섰다.

이번 증거조작 문제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중간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한 바로는 아직 다른 지도부에게 5월 5일 (관련 의혹) 발표가 있기 전에 보고는 안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안 전 대표에게) 이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도 전날 TBS라디오에서 안 전 대표를 향해 "자신을 위해 뛰었던 집단과 세력에 대해 장수(안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야 하는 광주와 전남 지역 지자체장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목포 발전과 시민을 위해 어떤 정치적 판단과 진로를 택해야 하는지 고민하겠다"며 탈당을 시사했다. 다른 단체장들도 중앙당의 사태 수습 상황을 살피며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일반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어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이르면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의 '정계은퇴' 발표를 점치고 있지만, 이보다는 유감 표명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정용욱 기자 dragon@

# 김상곤·송영무 이어 조대엽도 '파상공세'

**음주운전 적발·인턴 월급 가로채기 등**
**야당 자진사퇴 요구… 낙마 가능성도**
**인사 청문 길어지며 국회 운영 안갯속**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전날에 이어 30일까지 이틀로 늘어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조대엽〈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야당은 일찍이 이번 주 청문회 대상자들을 '김·송·조(김상조·송영무·조대엽)'라고 부르며 '부적격 3종 세트'라고 규정한 바 있다. 김 후보자와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조 후보자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조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두고 검증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집중 추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해명 과정에서 대국민 거짓말 △임금체불 기업 사외이사 근무 △교수 시절 부적절한 언행 등 △상속증여세법 위반 △소득세법 위반 △부인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주 쟁점은 음주운전이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10년 전인 2007년 겨울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고려대 캠퍼스 인근에서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 천막 농성 중이던 제자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는 의혹도 쟁점이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당시 방송 콘텐츠 회사인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의 사외이사를 지내 겸직 금지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로 재직할 때 회사가 피디·기자·아나운서직으로 일한 인턴 4명이 월급 150만 원 중 30만 원을 회사에 반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민감한 세금 문제도 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최근 5년 동안 2억8000여만 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부인이 2004년 11월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한 채를 사면서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환노위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종합소득세 자료를 토대로 조 후보자의 외부 강연비·연구용역비 등이 포함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부분이 1억1000여만 원가량 축소 신고된 내역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주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인사청문 정국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이광호 기자 khlee@

# 全산업생산 '-0.3%' 두 달 연속 부진

## 서비스업·건설 생산 줄고, 소매판매도 '뚝'…통계청 "경기하락 국면은 아냐" 낙관

서비스업 생산이 줄면서 5월 전 산업 생산이 하락했다. 1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던 4월(-1.0)에 이어 2개월 연속 부진한 흐름이다. 소매 판매 역시 내림세로 전환했고, 건설기성도 1.6%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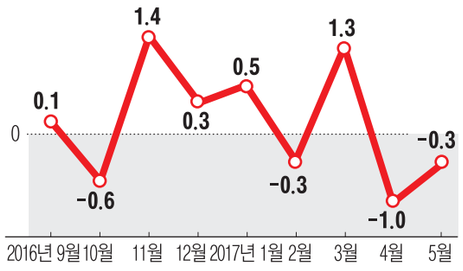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올해 2월 0.3% 줄었다가 3월에 1.3%로 반등했다. 하지만 4월에 1.0%로 떨어진 뒤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5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에서 증가했으나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광공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18.2%), 자동차(-1.9%)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9.1%), 전자부품(4.7%) 등이 늘어 전월에 비해 0.2%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0.8%), 전문·과학·기술(2.4%) 등에서 증가했지만,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3.9%), 도소매(-1.3%) 등이 줄어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0월(-0.5%) 이후 7개월 만이다.

소매 판매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0.2%) 판매는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3.3%),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 판매가 줄면서 0.9%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 추이** (단위: %, 전월비)




설비투자는 운송장비(-17.6%) 투자가 감소했지만, 기계류(10.2%) 투자가 늘어 전월에 비해 1.8%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기성은 건축(-3.7%) 공사 실적이 부진하면서 1.6% 떨어졌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감소했고,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전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했지만, 경기가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 150.2㎞ 동서고속도로 완전 개통



서울과 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150.2㎞) 완전 개통일인 30일 강원 양양군 영덕호 인근에서 차량들이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번 완전 개통으로 서울에서 양양까지 이동거리는 기존 175㎞에서 150㎞로, 주행시간은 2시간 10분에서 1시간30분으로 줄어든다. 서울-양양 간 통행료는 1만1700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오전 개통식 이후 오후 8시부터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기자 foto@

# SR-코레일 합병 추진…서비스 후퇴하나

## 국토부, 내달 전문가 TF 구성해 경쟁체제 재검토…할인 등 국민편익 하향 우려

정부가 개통 6개월을 맞은 수서고속철도(SRT)를 코레일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경쟁체제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가 제고됐음에도 공공성을 이유로 통합하려는 것은 국민 편익을 무시한 것이란 지적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철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코레일과 SR 두 회사가 가격·서비스 경쟁을 벌이는 현재 철도 경쟁 체제가 바람직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 공공성 강화 방안' 보고서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9월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를 결론 내릴 계획이란 내용도 담겼다.

대선 때인 5월 더불어민주당은 철도노조와 '경쟁체제란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3일 취임사에서 "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R 운임이 KTX보다 평균 10% 싸게 책정되자 코레일은 KTX 운임의 5~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SRT가 특실에서 견과류 제공 등 서비스를 시행하자 KTX가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했고, SRT 열차 내에 전기 콘센트가 주목받자 코레일은 USB 포트를 포함한 혼합형 콘센트를 설치했다. 코레일 독점 체제라면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 경쟁인 셈이다.

SR는 코레일이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학연금(31.5%)·IBK기업은행(15%)·산업은행(12.5%)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곽도흔 기자 sogood@

# 부산·광양항 '해경특구' 지정 때 6210개 일자리 창출

## 文 대통령 공약…국회 농축산위 용역 보고서 결과 37개 기업이 4341억 투자 기대

부산항과 광양항이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4000억 원 이상의 기업 투자금이 몰리면서 6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해양경제특구 지정으로 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리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투데이는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항과 광양항이 해양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조선·해양플랜트, 수산·바이오, 요·보트, 해양에너지 클러스터, 기타(선박 컨설팅, 엔지니어링, 수상구조물) 분야 37개 기업이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예상 투자금액은 총 4341억 원이다. 필요면적은 약 197만8077㎡(59만8365평) 수준이며, 621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특구 관련 투자 수요를 종합해보면 새 일자리는 △조선·해양플랜트 3165명 △수산·바이오 420명 △요·보트 300명 △해양에너지 클러스터 2300명 △기타(선박 컨설팅·엔지니어링·수상구조물) 25명 정도다. 투자 비중은 산업별로는 조선·해양플랜트, 요·보트, 수산·바이오가 전체의 약 85%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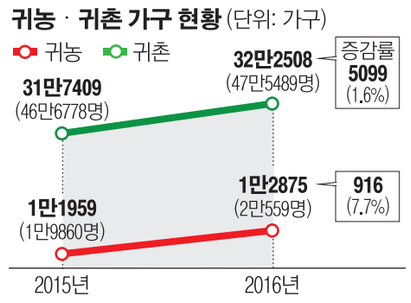
다만 투자 희망 기업들은 △기반시설 구축 △R&D △해외진출지원 △세제 △임대료 △인력 관련 등의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유휴 항만의 해양경제특구 지정과 고부가가치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하면서 "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다른 특구와 같은 조세·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투자 유치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범 성공을 위해 기업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

# 되돌아간 사람 빠진 '귀농·귀촌' 통계?

## 지난해 49.6만 명…절반이 청년층
## 일각선 3명 중 1명 정착실패 추정
## 농림부 "역귀성 6% 수준" 괴리감
## 행정자료만 이용한 부실통계 지적
## 단순 주소지 이전도 포함돼 '한계'

**귀농 · 귀촌 가구 현황** (단위: 가구)




정부가 지난해 귀농·귀촌 및 귀어 인구가 5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2030 청년층 세대가 절반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농촌 정착에 실패해 돌아오는 역귀성 인구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통계라는 지적이다.

30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내놓은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은 2만559명, 귀촌은 47만5489명으로 집계됐다. 귀농과 귀촌을 합해 지난해 농촌으로 간 인구는 49만6000명 규모다.

귀농·귀촌인과 동반가구원 중 30대 이하 젊은 층은 50.1%를 차지했다. 귀농가구원의 25.8%(5307명), 귀촌인의 51.1%(24만3413명)가 30대 이하 청년층이란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 귀농인을 농업의 미래 첨단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4차 산업형 귀농교육을 신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과정이나 2030 농산업 분야 창업과정 등의 청년 특화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통계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대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상호 연계해 작성한 것이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여부와 함께 농업인 여부 판단 시 활용하는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를 추가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농촌에 갔다가 정착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역귀성 인구는 파악하지 않아 한계성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최근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경제문제로 농촌에 가는 경우가 많아 3명 중 1명꼴로 역귀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역귀성 규모와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다는 발표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귀농·귀촌 성격이 아닌 아파트 분양 등으로 단순히 지방에 주소지를 옮긴 경우까지 통계에 잡혀 실제 규모는 훨씬 적다는 추산이 나온다.

이재욱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순귀농과 순귀촌을 보려면 역귀성과 역귀촌을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 통계를 못 잡고 있다"며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통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시로 돌아가는 비율을 조사해 보니 6%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희훈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농사 외에도 귀촌에 대한 목적이 다양한데 이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며 "행정자료만을 갖고 역귀성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뽑기는 어렵다. 농림부에서 실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 ‘6625원 對 10000원’ 너무 큰 간극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올해도 예상대로 법정 심의기한 넘겨
## 내달 3일 전원회의 다시 열어 논의… 노동계 오늘 총파업



어수봉 최저임금 위원장이 29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노사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발표한 뒤 피곤한 표정으로 자리를 뜨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노·사·공익 위원들이 밤 11시까지 의견을 나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측이 각각 요구안을 고수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예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주장했다. 올해 6470원보다 54.6% 인상된 액수다. 근로자위원 측은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 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 원이 돼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2.4% 오른 6625원을 내놓으면서 근로자 측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사용자위원 측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또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며 일괄적용을 굽히지 않았다. 노사 양쪽은 결국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 간 최저임금안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계가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해 갈등은 심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할 권리 지금당장’을 기치로 총파업대회를 연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계와 연합해 구성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도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총파업대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학·병원·지자체 청소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3만~4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이 지났지만, 다음 달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5일 8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서 7월 16일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된다.

박은평 기자 pepe@

# 산업·지역·직종별 구성 ‘초기업’ 노조는 해고자 가입해도 ‘노조’ 명칭 사용 가능

### 대법 ‘삼성일반노조’ 무죄 원심 확정

삼성일반노동조합은 해고 근로자들의 가입을 허용했더라도 초(超)기업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기업노조란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초과해 지역·산업·직종 등을 조직단위로 하는 노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5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조 등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해고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업별 노조인지 초기업적 노조인지를 구분할 때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하나의 사용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 2심은 △삼성일반노조는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전국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내하청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조합원이고 △단체교섭 상대방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내하청기업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삼성일반노조를 초기업노조라고 판단했다. 기업별 노조가 아니므로 해고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고, 법외노조가 아니므로 노조 명칭을 사용한 것도 잘못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김 위원장은 2003년 인천지역 삼성 계열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뒤 삼성일반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삼성그룹 및 관계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노조였다. 이 부분이 문제가 돼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에도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등 집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 올 여름도 변함없는 開門冷房



고리원전 1호기 폐기로 올 여름 전력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가운데 29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상점이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 신고자 60명에 보상금 12억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60명에게 보상금 12억여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올해 들어 세 번째 보상위원회를 열고, 부패신고자 17명에게 10억4000여만 원, 공익신고자 43명에게 1억7000여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사례를 보면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와 달리 록볼트(rock bolt)를 적게 시공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A씨에게 2억1800만 원이 지급됐다. 록볼트는 암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자재이다. 또 정부연구용역 업체가 인건비를 횡령했다고 신고한 B씨는 8300만 원, 사회복지단체가 아동 생계급여를 편취했다고 신고한 C씨는 2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사례를 보면 무허가 계란가공업체가 깨지거나 분변에 오염된 계란을 액상으로 가공해 제빵업체·학교급식 업체에 납품했다고 신고한 D씨에게 3769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거래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E씨에게 2255만 원, 반도체 공정 관련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업체에 유출한 행위를 신고한 F씨에게 382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들의 신고로 국가·공공단체로 회복된 수입 등 경제효과가 198억3000여만 원”이며 “부패신고에 따른 효과가 188억7000여만 원, 공익신고에 따른 효과가 9600여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 분식회계에 ‘적정의견’ 낸 회계법인이라도

# 손배소송 3년 제한한 자본시장법 ‘合憲’

### 헌재 “제척기간 지나도 민법상 구제 가능”

외부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자본시장법 170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은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투자자가 문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제한하더라도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해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문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기간을 설정해 피해 사실을 몰랐던 투자자가 감시당국의 공시 및 수사기관의 발표 등을 통해 감사보고서가 부실하게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지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최대 10년까지 물을 수 있다.

A씨 등은 2010년 B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은 C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낸 감사보고서를 믿고 후순위사채를 구입했다. 3년 뒤 B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및 파산선고를 받았다. 뒤늦게 C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A씨 등은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KT LTE 고객
모두가
지금
**배터리 절감기술**을
누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절감기술** 45% UP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테스트 결과 (YouTube연속재생 기준)

**KT 배터리 절감기술** (C-DRX)

데이터 송수신 주기를 최적화 시켜
서비스 품질은 그대로!
**배터리 사용시간은 최대 45% 더 길게!**

PEOPLE. TECHNOLOGY. kt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테스트결과(성적서번호: TTA-N-17-0190), 갤럭시S8 배터리 방전시까지 YouTube연속재생 기준 · 무선환경 및 단말모델에 따라 이용시간 증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홈페이지 참조

# 헬기사고 적어 자체요율 못내 보험사 "과징금 폭탄땐 소송"

## 코리안리·11개 손보사 '항공보험요율' 담합

### 보험가입·갱신 입찰서 보험사들 수년째 같은 요율 제시
### "사고 통계 부족하고 해외 재보험사 활용도 쉽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된 항공보험은 경찰청, 소방항공대, 지자체 등 정부기관이 보유한 헬기의 사고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항공보험의 특징은 보험사 스스로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아닌,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로부터 협의요율을 받아 적용한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직접 항공보험 요율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보유한 헬기가 많지 않은데다, 헬기의 사고 발생 빈도가 낮아 보험사 자체 경험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코리안리가 제공하는 1개의 협의요율 수치만을 사용한다.

경찰청 등이 공정위에 보험사 담합 의뢰를 한 것도 보험가입·갱신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11개 보험사들이 수년째 똑같은 요율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한 지자체가 나라장터(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를 통해 소방헬기 보험에 신규 가입하기 위해 입찰한 결과 응찰한 11개 손보사의 투찰금액이 1억1583만 원으로 동일했다.

공정위는 최근 보험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도 △119 헬기건 공동담합 △재보험 협의요율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항공보험 시장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코리안리 협의요율이 아닌 다른 요율을 쓰려면 해외 재보험사가 국내 시장으로 진입하거나, 원수보험사가 자체 요율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모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한다.

A보험사 관계자는 "해외 재보험사들은 국내 헬기시장이 작아 코리안리와 경쟁할 만큼 국내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각 보험사도 사고 데이타가 없어 자체 요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코리안리에서 협의요율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코리안리 항공보험 요율만 적용해왔다"며 "헬기 사고 등 규모가 큰 사고가 나면 보상 처리의 신속함이 중요한데, 해외재보험사와는 빠른 보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23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항공보험의 특징상 코리안리 협의요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제재가 현실화될 시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정위 전원회의 최종 결정은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금융사들이 과징금 제재 조치를 수용해 바로 돈을 지급한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KB국민은행 '모바일 매직카대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KB국민은행이 30일부터 모바일 전용 'KB 모바일 매직카대출'과 신용카드 결제를 결합한 'KB 모바일 매직카대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KB 모바일 매직카대출'과 연계해 은행 방문 없이 신차 구입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최대 1.5%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모바일에서 대출과 신용카드 결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신차 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5년을 기준으로 현재 최저 연 3.06%(우대금리 포함)이며, 신용카드결제로 1.5%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경우 0.5%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 또 국민은행은 자동차대출 상담 고객의 편의를 위해 KB매직카대출 전담센터 상담 시간을 다음달 1일부터 평일 19시, 토요일은 15시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KB국민은행

# PCA생명 품은 미래에셋생명 직원들 '미래에셋化' 작업 열중

### 하만덕 부회장 PCA로 자리 옮겨 '직원 위한 기업문화 과정' 행사열고 통합 중요성 강조…양사 소통 나서



하만덕(사진)PCA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이 PCA생명 직원들의 '미래에셋화(化)' 작업에 나서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PCA생명은 '직원을 위한 미래에셋 기업문화 과정'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하만덕 부회장을 비롯한 PCA생명 임직원이 참여했다.

행사는 오전부터 시작했으며 △미래에셋그룹 소개 △미래에셋 글로벌 진출 케이스 스터디 △미래에셋생명의 역사 및 비전 공유 △리더십 및 소통 역량 배양 △하만덕 부회장 직원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다.

하 부회장은 마지막 프로그램인 '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두 회사의 임직원들은 이미 오랜 기간 같은 보험인으로 서로 어려움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통된 DNA가 존재한다"며 "하나가 된 미래에셋생명에서 클라이언트 퍼스트(Client first) 정신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고객의 평안한 노후를 책임지는 차별화된 보험회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하 부회장은 최근 미래에셋생명 대표 부회장에서 PCA생명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미래에셋생명 측은 양사의 원활한 상호 소통을 통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PCA생명의 내실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일 PCA생명 인수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미래에셋생명-PCA생명 임원 및 실무자로 구성된 통합추진단이 내년 1분기 내 통합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중이다.

시장은 두 회사의 합병 시너지효과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김고은 애널리스트는 "PCA생명의 변액보험 자산 규모 약 4조 원, 수수료율은 약 40bp로 미래생명의 수수료기반사업(Fee-biz) 잔고 및 수수료의 약 30% 수준"이라며 "합병 시 특별계정 부채 비중이 상승해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 감소하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 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료 더 주겠다"

### 연매출 0.2%에서 0.3~0.4%로 상향제시
### 박삼구 회장은 0.5% 20년 의무사용 고수
### 우선협상자 더블스타와 협의 내달 판가름
### 매각 무산땐 박 회장 우선매수권 박탈 방침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료율을 금호산업에 상향 제시한다. 금호타이어 상표권료를 둘러싼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의 갈등은 7월 중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르면 다음달 3일 주주협의회를 열어 상표권료 사용조건 변경안을 확정한다. 해당 내용은 산은이 금호타이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와 협의한 사안이다.

이들은 상표권료를 기존에 제시한 연간 매출의 0.2%(약 60억 원)에서 0.3~0.4%로 금호산업에 상향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기간은 5년 의무사용, 15년 추가사용 중 의무사용 기간을 소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 협의는 마친 단계"라며 "7월 중에는 금호산업과의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수정 제시안을 바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박 회장은 사용료율 0.5%, 20년 의무사용을 고수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이달 9일과 19일 두 차례 이사회를 열었지만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 의지가 여전한 것을 고려하면 채권단의 수정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금호타이어 주요 주주들은 이 같은 경우도 대비할 계획이다. 다음달 열리는 주주협의회에서 금호산업이 수정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계획도 논의된다. 금호산업이 0.5%를 고수하면 채권단이 더블스타에 차입금 금리를 낮춰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에 이자로 연간 1000억 원을 내고 있다. 대출금리를 약간만 낮춰도 양측의 사용료 차이인 연간 90억 원을 보전할 수 있다.

박 회장을 비롯, 금호타이어 경영진의 해임도 추진한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되면 채권단은 경영진 퇴진과 함께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을 박탈할 방침이다. 박 회장이 자금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우선매수권 없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호타이어의 재무제표가 부실해진 것을 고려하면 경영진의 퇴진 명분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금호타이어의 2016년 영업이익은 1200억 원으로 2015년의 1359억 원에 비해 11.7% 줄었다. 금호타이어는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경영평가에서 D를 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의 금호타이어 매각 의지가 확고한 만큼 박 회장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 현대重 신사업 지휘… 보폭 넓히는 정기선

〈현대중공업 전무〉

## 한전과 해외 페트콕 발전 공동개발 MOU 체결
## 사우디·러시아 연합체제 구축에도 주도적 역할
## 지주사 전환 작업 등 '경영 승계 준비' 해석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사진〉 현대중공업 전무가 경영 전면에 나서며 현대중공업그룹의 주요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이 정기선 전무로의 경영 승계 준비로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정기선 전무는 전날 서울 계동 현대빌딩에서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사장과 함께 유향열 한국전력 부사장과 만나 해외 페트콕 발전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페트콕 사업에 대한 3사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페트콕은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로, 이들 3사는 페트콕을 연료로 CFBC보일러라는 특수설비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키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다수의 플랜트 공사 실적을 통해 자체 CFBC보일러 설계, 제작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오일뱅크는 전 세계적으로 페트콕 발전소 운영 경험을 보유한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이다.

또, 한국전력은 발전설비 운영 능력과 해외 발전사업 개발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정 전무는 "그룹의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전력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한국전력과 함께 민자발전사업에 진출하게 돼 기쁘다"며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기술과 현대오일뱅크가 보유한 발전소 운용 능력 등 그룹사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무가 그룹사 간 시너지를 통해 신사업을 발굴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사우디, 러시아와의 연합체제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해낸 것이다. 2015년 사우디 국영 석유사 아람코와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하며 중동에서의 사업 기반을 다진 정 전무는 지난달 아람코, 사우디 국영 해운사 바흐리, 아랍에미레이트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산업 서비스업체 람프렐 등과 함께 연내 사우디 합작 조선소 건설에 합의했다.

합작 조선소는 사우디 동부 라스 알헤어 지역의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496만㎡(150만 평) 규모로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러시아 국영석유회사 로스네프트 산하 즈베즈다 조선과 선박 엔지니어링 합작사 '즈베즈다-현대'를 설립하는 데도 정 전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임원 승진과 함께 기획실에 배치된 정 전무가 두각을 나타낸 것은 현대중공업그룹이 사업부문별로 인적분할을 진행하며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 작업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정 전무로의 승계 작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 전무의 나이가 아직 30대에 불과해 승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국내 주요 그룹들이 승계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승계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정홍근 대표 "2025년 유럽·북미노선 취항"

# 飛上 꿈꾸는 티웨이항공

## 중·대형기 도입 장거리 도전
## 내년 하반기 기업공개 추진
## LCC 업계 '지각변동' 예상



정홍근〈사진〉 티웨이항공 대표이사가 중·대형기를 도입해 2025년부터는 유럽과 북미 노선에 취항한다.

대형기 도입, 항공정비(MRO) 등의 투자와 자본금 확충을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기업공개(IPO)도 나선다. 티웨이항공이 대형항공사(FSC) 시장으로 분류되는 중·장거리 노선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경우 저비용항공사(LCC)의 순위 변동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티웨이 BLOSSOM 2025'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티웨이항공이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창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티웨이항공은 2020년부터 중·대형기를 도입한다. 이에 앞서 2018년 25대, 2019년 28대, 2020년 30대 등 순차적으로 항공기를 도입해 2025년까지 총 50대의 항공기를 보유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대형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승산이 있다"며 "2025년에는 운수권이 없는 프랑크푸르트 운항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티웨이항공의 계획대로 된다면 국내 LCC 중 최초로 유럽에 취항하게 된다.

정 대표는 중·단거리 노선 경쟁력부터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지역에 프랜차이즈를 설립해 공급망을 세밀화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항공사 얼라이언스나 조인트벤처 같은 방식보다는 양자 간·양 사 간 협상(프랜차이즈)을 통해 상대국에 진출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티웨이항공은 2018년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한다. 내년 상반기에 주관사 선정, 주총 결의 등 사전준비에 나서고 하반기에 상장 예비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매출액 5500억 원, 영업이익 450억 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주항공은 2015년 말, IPO에 나설 당시 매출액 5106억 원, 영업이익 295억 원, 당기순이익 320억 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항공정비(MRO: Maintenance·Repair·Overhaul)사업 △조인트벤처(J/V) 투자 △콜센터 등 자회사 설립 △트레이닝센터 설립 △항공인력 양성 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종합항공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황윤주 기자 hyj@



삼성전자가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갤럭시 S8+' 로즈 핑크, '갤럭시 S8' 코랄 블루 색상을 30일 국내에 출시한다. 자연의 멋을 담은 아름다운 색상을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해 감각적이고 품격 있는 색상을 완성했다는 평가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LG전자가 LG G6 패밀리 제품인 G6플러스와 G6 32GB 버전을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30일 출시한다. 신제품은 18:9 비율의 5.7인치 풀비전 디스플레이와 광각 듀얼 카메라, 하이파이 쿼드 댁(Hi-Fi Quad DAC), LG페이 등 LG G6 강점을 그대로 계승했다. 사진제공 LG전자

# 삼성·LG 틈새폰 '여름대전'

## 갤럭시S8 '로즈핑크' '코랄블루' 등 신규컬러 모델 선보여
## G6, LG페이 탑재·내장 메모리 용량 달리한 파생폰 출시

하반기 스마트폰 틈새시장을 노리는 삼성과 LG의 파생폰이 30일 국내에 동시 출격한다.

30일 양 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8플러스(+)' 로즈 핑크와 '갤럭시S8' 코랄 블루를, LG전자는 128기가바이트(GB)의 내장메모리를 탑재한 'LG G6+(플러스)'와 32GB 용량의 'LG G6'를 국내 이동통신3사를 통해 출시했다.

통상 7~8월은 스마트폰 시장의 비수기로 꼽힌다. 봄에 출시된 상반기 플래그십 모델의 신상 효과가 떨어지고 9월에 등장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수년째 전략폰 출시 후 신규 컬러 모델 출시 전략을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는 올해도 출시 2개월이 지난 갤럭시S8 시리즈에 '로즈 핑크' '코랄 블루' 모델을 추가했다. '갤럭시 S8+' 로즈 핑크와 '갤럭시 S8' 코랄 블루는 모두 64GB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99만 원, 93만5000원이다.

LG전자는 기존 'G6 64GB' 단일 모델에서 내장메모리 용량을 달리한 파생폰으로 시장을 공략한다. 'LG G6+'는 128GB 내장메모리로 기존 64GB보다 용량이 2배 늘어났고 'G6 32GB'는 기존보다 용량이 2배 낮아지면서 가격도 떨어졌다. LG페이도 탑재됐다. LG전자는 G6 출시전부터 기대를 모으자 8개의 파생 상표권을 등록하며 유사 제품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친 바 있다.

이상규 LG전자 한국모바일그룹장 전무는 "다양한 고객이 선호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품군을 강화해 더 많은 고객들이 LG페이, 풀비전 등 LG G6만의 특장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 "행복한 가정,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

# 포스코 '가화만사성' 프로젝트

## 다음달부터 '육아지원근무제' 도입
## 개인여건 맞게 근무시간 조정 가능
## 난임치료 휴가·출산장려금 지원…
## 사내 어린이집 지원기간·정원 확대

포스코가 '가화만사성' 조직 문화를 만들고 있다. 최근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대폭으로 늘린 데 이어 내달부터는 육아지원근무제를 실시한다.

포스코는 30일 내달부터 완전자율 퇴근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무 공유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근무하는 육아지원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출퇴근제는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는 조정되지만, 주 5일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하는 게 전환형 시간선택제다. 또한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을 근무하는 직무공유제도 선택 가능하다. 육아지원근무제는 직원 누구나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최근 포스코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제도나 육아지원근무제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들은 소급 적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할 정도다. 포스코는 지난 3월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첫째 100만 원, 둘째 이상은 5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증액했다.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연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 어린이집의 지원 기간과 정원도 확대했다. 사내 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신청이 몰려 대기자가 많았지만, 정원을 확대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포스코는 미취학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부모 퇴근 시까지 자녀를 돌봐 주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 개성공단기업協 "다음달 방북 재추진… 재개 노력 계속"

## 6월 내 방북 추진했지만 웜비어 송환 사망사건 터지며 정체
## 입주기업 80% "연내 재개 힘들 것"… 장기적 생존전략 고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80% 가까이가 연내 공단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생존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15가 상징적인 날짜여서 이를 전후로 한 첫 방북을 추진했는데 생각대로 안 됐다"며 "8·15쯤까지 개성공단 재개와 보상에 대한 새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애초 새 정부에 대한 기대로 6월 내 첫 방북을 공언했던 협회의 계획은 웜비어의 송환 및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정체된 상태다. 해를 넘긴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동력이 될 신임 통일부 장관 인선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협회는 대통령 방미 일정 이후인 7월에나 방북 재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한 협회 관계자는 "대내외 정치적 변수에 따라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점이 있고 없는 시점이 있다"고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협회가 공개한 입주기업 설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재개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연내 재개를 예상한 기업은 22%에 불과했다. 대다수인 70%의 기업이 2018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재개가 아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본 기업들도 5% 있었다. 이는 협회가 올 2월 실시한 설문에서 입주 기업의 52%가 공단의 연내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던 응답과 비교할 때 조속한 재개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정치적 일정이 정체되는 가운데 입주기업들의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기업 재무현황 질문에 응한 108개사는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이 평균 26.8% 급감했다고 답했다. 50% 이상 매출이 폭락한 기업도 전체의 23%인 25개사에 달했다. 개성공단 중단 후 평균 영업손실은 8억9000만 원 정도였다. 협회 관계자는 "영업 손실이 재무제표에 반영돼 평균 39% 부채가 증가하고 21%의 자본이 하락했다"면서 "기업들의 대출 금리도 올라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신규대출이 시급한 기업부터 남북협력기금 또는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수혈하고 금융기관에서 입주 기업의 신용등급에 대해 예외 적용하는 안을 요청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이제 입주 기업들에는 '생존이 곧 재개'가 됐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이제 특별법보다 유동성 공급을 통해 당면한 경영 위기를 해소하고 생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됐다"며 "일단 정부가 기업들이 확인한 피해액만이라도 전액 보상하고 긴급 대출 지원을 하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 한경연, 올 성장률 2.5%→2.9% 상향조정

## "투자 호조·수출 증가… 성장 전망"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9%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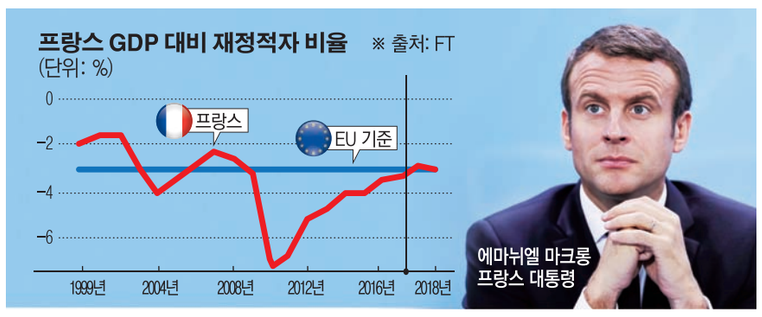
한경연은 29일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분기 보고서를 통해 설비 등 투자 호조와 세계 경제 성장에 따른 수출 증가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6년 2.5%에서 0.6%포인트 줄어든 1.9%로 내다봤다.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평균 소비성향의 낮은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가계 실질소득 악화와 금리상승으로 인한 본격적인 이자부담 증가가 가계소비를 제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5.3%로 지난해 10.7%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실질수출은 지난해 2.1%보다 높은 3.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과다 부채, 고령화, 생산성 하락세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 요인과 미국의 금리인상,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유럽 등 일부 국가들의 반세계화 흐름 등이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마크롱 첫 시험대는 '재정긴축'

## 40억 유로 수입원 마련 못하면 EU 예산적자 한도 3% 초과
## 복지국가·경제활성화 공약 실행하려면 지출 축소 쉽기 않아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압승을 거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며 의회까지 장악한 마크롱이 이제 자신의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줄 일만 남았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이 가장 먼저 직면한 과제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일이다.

프랑스 국립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은 마크롱 새 행정부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정 적자 한도를 맞추려면 올해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전임 사회당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2.8%인데, 현 상황에서는 해당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며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더 취약한 상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새 정부가 40억 유로(약 5조2166억원) 규모의 신규 수입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3.2%를 기록해 EU가 정한 예산 적자 한도(3%)를 넘기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는 프랑스의 오랜 골칫거리였다. EU 역내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는 2007년 이후 계속 EU가 정한 예산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차기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과제로 긴축 조치 시행을 꼽으며 프랑스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프랑스의 부채가 GDP 대비 96%에 육박하게 됐으며 이는 유로존 평균보다 7%포인트, 독일보다는 30%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러한 경고는 극우 성향의 대선 후보였던 마린 르펜을 물리치고 엘리제궁에 입성한 마크롱이 마주하게 된 프랑스 재정의 민낯이라고 FT는 지적했다. EU 회의론자인 르펜은 GDP 대비 적자 비율에 대한 EU의 압박이 거세지자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를 이끌어 EU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EU 강화론자인 마크롱은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EU의 재정 적자 한도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EU와 독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EU 예산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복지국가, 경제활성화 등 자신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정부 지출을 줄이기란 쉽지 않다. FT는 마크롱이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복지국가 건설 등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지출 계획을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세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 지출 삭감은 마크롱이 주력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지출 없이는 그가 구상하는 대규모 실업자 재훈련 프로그램이나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 확대 등 노동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중앙은행장 논쟁거리 된 '로보칼립스'

자동화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로봇이 모든 인간의 노동을 처리하게 되는 이른바 '로보칼립스(Robocalypse·로봇으로 인한 종말)'가 더는 SF 소설이나 영화, 게임의 주제만이 아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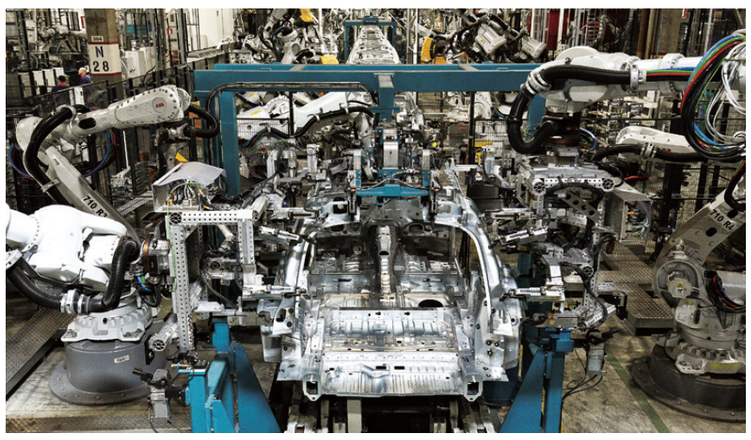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수장들이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ECB) 주재로 포르투갈에서 열린 포럼에서 로보칼립스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고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포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이나 인플레이션 전망에 쏠렸지만 정작 중앙은행 수장들은 로봇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궁극적으로 인간으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적 변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에 대해 의견을 펼쳤다고 NYT는 전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제임스 불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중앙은행 고위 관리들과 경제학자들이 집결한 27일 데이비드 오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로보칼립스가 정말로 올 것인가'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시대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이번 포럼에 모인 참가자들을 위해 로보칼립스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모임은 10년 전보다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훨씬 커진 가운데 이뤄졌다. 드라기 총재는 "현재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기회복이 강화할 것이라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이런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딥러닝 등을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AI에 기반한 컴퓨터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


메르세데스-벤츠의 핀란드 공장에서 로봇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블룸버그

### 실업률 최저·기업 실적 호조 불구 근로자 점유율·생산성 저하
### 경제성장에도 임금·물가 제자리…PC가 작업 수행하기 때문
### "인공지능 급속 발전, 회계사·투자매니저 등 직종 대체 가능"

과거 기술적인 진보는 일시적인 혼란을 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범주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농기계가 농장 노동자들을 몰아냈지만 근로자들은 더 나은 보수를 받는 직장을 찾을 수 있었으며 오늘날 그들의 증손자 시대에는 게임 개발 등 새 일자리가 생겼다.

그러나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사무소 직원, 회계사, 투자 매니저 등 생산 자동화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광범위한 일자리가 위기에 놓이게 됐다. 많은 사람이 트랙터 발명 이후 쓸모없게 된 쟁기를 끄는 말과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고 NYT는 경고했다.

베노이트 쿠에르 ECB 정책위원은 "포럼에서 로보칼립스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ECB는 실업률이 떨어지는 등 경제성장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임금과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에 고민이 깊어졌다. 그리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로 첨단 컴퓨터들이 많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보상이 극소수의 엘리트에게만 돌아간다는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많은 전문가가 로보칼립스가 임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분명히 일자리 중 일부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지만 자동화로 생산성이 더욱 좋아지면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하도록 많은 제품 가격이 싸질 것이며 다른 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1800년대 말 미국 근로자의 40%가 농장에서 일했다며 오늘날 이런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미국과 유럽, 일본 기업들이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이 혁신적인 제품과 설비 등에 투자하는 대신 주주 뱃속 채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자동화보다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반론들에도 선진국의 근로자와 중산층 사이에서 기술 변화가 일으키는 혁신에 대한 회의론이 이미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로보칼립스에 대한 불안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1년 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결과 등 포퓰리즘 물결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NYT는 지적했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번 포럼에서 최근 미국 설문조사에서 자국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응답보다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답변이 두 배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결과 우리는 경제에 대해 '디스토피아(어두운 미래상)'적인 견해를 가진 후보(트럼프)를 대통령으로 갖게 됐다"고 꼬집었다.

오서 교수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지에 대해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르다"며 "그러나 로보칼립스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미래에는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가족 있어야 비자 발급?… 무슬림, 美 수정 反이민에 반발



미국 샌프란시스코 유니언 스퀘어에서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 내용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이 이날 발효됐는데, 미국 내에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 연관성이 있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새 조항이 추가돼 무슬림 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입증하려면 공식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언론인, 학생 등 미국에서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은 입증이 면제된다.
샌프란시스코/AFP연합뉴스

테크 인사이트 獨 스타트업 개발 '실내 수직농법'

# 슈퍼마켓서 무농약 채소 기르고 팔고

## 작물 원격 관리… 신선도 극대화
## 대량 생산보다 맛·영양 중시

슈퍼마켓의 통로 좌우로 투명한 컨테이너가 서 있다. 안에는 작은 상추밭이 층층이 쌓여 있다. 상추들은 여러 센서에 의해 관리된다. 관개, 영양 공급 등은 인터넷 시스템이 통제한다. 최적의 상태로 자란 상추들은 통로 쪽에 줄지어 있다. 고객은 그중 하나를 사면 된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독일 베를린 소재 스타트업 인팜이 개발한 '실내 수직농법'이라는 시스템이다. 사실 이런 수직농법 자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 인구 대비 부족한 농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럼에도 인팜은 자사의 실내 수직농법이 기존 방법이나 여타 스타트업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과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인팜의 오스낫 미카엘리 공동 창업자는 최근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우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활용해 정교한 농법을 구현한다"며 "각 농지는 식물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고유의 생태계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다. 인팜의 수직농법 체계는 그날 그날 수확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식물은 크기와 성장도 등에 따라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이동한다. 이에 더해 집적 센서들을 통해 농지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활용해 인팜의 전문가들은 원격으로 곡물을 관리하고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다.

특히 인팜은 슈퍼마켓 체인 등 소매업체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꾀하고 있다. 인팜의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에레즈 갈론스카는 "3~4년 전에 이 아이디어를 처음 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고 회상하며 "우리는 슈퍼마켓에 수직농법을 도입한 최초의 회사"라고 자부했다.

실제 도입 사례도 있다. 지난해 유럽의 가장 큰 유통업체 중 하나인 메트로그룹은 인팜의 실내 수직농법 기술을 도입했다. 갈론스카는 "점점 우리 기술을 도입하려는 슈퍼마켓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내 수직농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의 밑바탕에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있다. 미카엘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신선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찾고 있는 반면에 식품업계는 공급 구조에서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쓰레기를 줄일 기술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팜은 농약을 쓰지 않으며 대량 생산이나 유통기한 같은 요소보다 맛, 색깔, 그리고 영양소 등을 중시한다. 또한 농부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극단적으로 좁힘으로써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인팜은 400만 유로(약 51억9000만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 베를린의 체리벤처스를 비롯해 콰디아, 런던의 로컬글로브, 애틀랜틱푸드랩스, 이데오, 디맨드 어낼러틱스 등이 투자했다.

이지민·김벼리 기자 aaaa3469@

# '러시아 내통 의혹' 트럼프, 다음달 푸틴 만난다

## 7~8일 獨 G20 정상회의서 첫 회동… 스캔들 문제 거론할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을 풀지 못한 가운데 다음 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다. 다음 달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예정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날 허버스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양국 정상이 G20 회의가 열리는 함부르크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공식 통화는 3번 했으나 취임 뒤 만난 적은 없다. 맥매스터는 "구체적인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논의하고 싶은 어떤 것이라도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양국 정상회담이 비교적 덜 공식적인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회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비공식적 회담과 공식 회담 간에는 뚜렷한 의미 차이가 있다. 공식적인 회담은 비공식적 회담보다 양국 간 관계 증진에 더 큰 힘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비공식적 회담이 되면 러시아와 미국의 유대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러시아 내통설에 휩싸이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는 러시아 스캔들 여파로 탄핵까지 직면했다. 특히 미 연방수사국(FBI)의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수사 중단 압박을 넣었다는 증언을 하면서 수세에 몰렸다.

러시아 내통설은 현재 미국에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두 정상의 만남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내통설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측근들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푸틴 대통령과의 공식적인 만남이 두드러지는 게 여론상 좋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 상원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일괄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의 금융, 외교위원회가 주도한 이 법안은 현재 러시아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데 더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2394호(2017.5.30)
Stay Ahead는 고객을 위해 늘 한 발 앞서 있겠다는 삼성자산운용의 의지입니다

Stay Ahead™
이기는 투자

# 연금을 연금답게
# 삼성 한국형 TDF Target Date Fund
# 삼성 한국형 RIF Retirement Income Fund

젊을 땐 적극적으로

나이 들면 안정적으로

은퇴잔존자산까지

## 한국인의 인생을 아는 삼성 한국형 연금 솔루션
## 이제 연금이 연금다워집니다

예상 은퇴시기만 설정하면 생애주기에 맞춰
펀드가 자동으로 글로벌 자산배분하며
리밸런싱 해주는 삼성 한국형 TDF
은퇴를 위해 모아놓은 연금을
글로벌 인컴자산에 투자하여 월지급 해주면서
은퇴잔존자산까지 고려하는 삼성 한국형 RIF
삼성자산운용의 한국형 연금 솔루션이
당신의 편안한 노후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 삼성 한국형 TDF 시리즈
## 삼성 한국형 RIF 시리즈

*Powered by Capital Group*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samsungfund.com 참고 또는 콜센터 080-377-4777(상담 :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에 문의하세요.

자세한 상품정보 확인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은 환율변동 및 투자대상 국가의 상황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월지급식 상품은 이익금이 월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투자원금에서 지급되므로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지급이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SAMSUNG

# “디자인은 스타일 아닌 未來를 만드는 과정”

## ‘세계적 산업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의 예술철학

**파리바게뜨 생수병 ‘오’ 등 다수 국내외 기업과 협업**

**최근 디지털과 접목 관심 불가능했던 시도할 기회**

**10월7일까지 예술의전당 局 최대규모 회고전 열려**



유명 산업디자이너 카림 라시드가 29일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의 전시장을 찾아 자신의 작품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자인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스타일은 과거를 모방하지만 디자인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산업디자인계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카림 라시드(57)는 2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를 둘러싼 제품을 더 잘 디자인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작가는 “디자인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영감을 얻어 미래를 형성해 가는 것”이라면서 디자인으로 사람과 세상을 더 낫게 바꿀 수 있다는 자신의 철학을 강조했다.

이집트 출신으로 미국 뉴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그는 1993년 개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시작한 이후 아우디, 소니 에릭슨, 시티은행, 파비앙, 3M, 알레시 등 세계 각국의 400여 개 유수 기업들과 함께 디자인 작업을 해왔다. 국내에서도 파리바게뜨의 생수병 ‘오’, 현대카드 VVIP회원 카드, 반짝이는 초자글래스의 LG 디오스 냉장고 등 여러 기업들의 디자인 파트너를 맡았다.

실용성과 미학을 겸비한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굿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SA산업 디자인 어워드’ 등 300여 회에 걸쳐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작가는 디지털 기술과 디자인의 접목도 중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의 비물질적인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세계와 어떻게 결합하는지가 내 작품의 주된 관심사”라면서 “디지털 시대는 독창적인 시도, 이전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시도를 할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대량생산을 통해 구현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세계에 눈 뜬 그는 누구나 디자인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 ‘디자인 민주주의자’로도 불린다.

그는 좋은 디자이너 조건을 묻는 질문에 △독창적인 시도를 할 것 △사는 시대에 맞는 것을 디자인할 것 △작품·제품을 통해 인간 경험을 향상할 것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 것이라는 ‘모범답안’을 내놓았다.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예술의전당 내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카림 라시드전-디자인 유어셀프(Design Your Self)’는 작가 인생 30년을 돌아보는 회고전인 동시에 아시아에서 열리는 첫 대규모 전시다. 작가가 직접 전시장을 디자인했으며 뉴욕 스튜디오에서 소장하고 있는 디자인 스케치 원본과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조형물, 가구, 오브제, 미디어 작품까지 35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김정배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심재덕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장 김부성 〈과장급 전보〉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장 유승오

◆**서울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강옥현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강석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이미숙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박범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박진영 △〃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고경희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고영대 △정보기획관 데이터센터소장 김현규

◆**철도시설공단** 〈1급 승진〉 △재산용지처장 김공수 △수도권본부 민자사업단장 김종호 △충청본부 시설관리처장 이인희

◆**한국감정원** ◇**본사** △홍보실장 권화중 △주택공시처장 박철형 △부동산통계센터장 장종권 ◇**지사** △서울중부지사장 임명수 △서울남부지사장 최규성 △경기안산지사장 권영식 △강원춘천지사장 정진락 △강원강릉지사장 채성훈 △대전지사장 이성영 △부산서부지사장 한익현 △충남홍성지부장 김세기 △충북충주지부장 조철희 △경북포항지부장 윤관성

◆**연합인포맥스** △취재·방송본부장 김경훈 △취재·방송본부 부본부장 배수연 △콘텐츠기획1부 부국장대우 이두수 △콘텐츠기획2부 부국장대우 오석곤 △정보사업부장 고미향 △산업부장 이장원 △정책금융부장 이성규

◆**중앙미디어그룹** ◇**중앙일보데일리** △대표이사 박장희 ◇**중앙M&C** △대표이사 최훈 ◇**중앙일보** △광고사업본부장 정선구

## 부음

▲**송상헌**(중앙대 교수)·**상민**(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상호**(인천사랑병원 행정부원장)씨 모친상, **이왕준**(명지의료재단 인천사랑의료재단 이사장)씨 장모상 = 28일, 광주 조선대병원, 발인 7월 1일, 062-2258-5940

▲**이승연**(신한금융지주 홍보팀 차장)씨 부친상, **조성용**(조엘테크 대표)씨 장인상, **이수연**(신한은행 대리)씨 시부상 =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월 1일, 02-3010-2293

▲**임동욱**(화일약국 대표)·**동성**(GS홈쇼핑 상무)씨 부친상, **김철수**(김철수가정의학과 원장)씨 장인상 = 2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7월 1일, 02-2258-5940

▲**노재찬**(미성인쇄 부회장)·**재한**(미성인쇄 상무)씨 부친상, **김갑수**(에이엠씨 회장)·**이정석**(특허법원 부장판사)씨 장인상 = 2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7월 1일, 02-2258-5940

---

## ‘외산가전 무덤’ 한국서 생존 자신하는 데이비드 첸 에코백스 CIO

# “로봇청소기, 삼성·LG 이어 국내 톱3 목표”

**中시장점유율 65%로 1위**

**전세계 200만대 판매 기록**

**2019년 상하이 IPO 계획**

**픽업서비스 통해 AS 보장**

**온라인·홈쇼핑 등 채널 확대**

중국 로봇청소기 시장점유율 1위 브랜드 에코백스 로보틱스가 외산 가전의 무덤이라 불리는 한국 시장에서 3년 내 톱3에 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에코백스는 29일 서울 장충동 호텔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시장 공식 진출 선언과 신제품을 공개했다.

에코백스는 20년간 로봇 기술을 연구해온 로봇 전문기업으로, 중국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에코백스는 전 세계 31개국에서 가전 로봇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9년 중국 상하이 증시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첸 에코백스 해외사업 총괄사장 겸 최고혁신경영자(CIO)는 “전 세계에 200만 대의 로봇청소기를 판매했고, 중국서 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한국 시장은 아시아 트렌드를 리드하는 시장이고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판단해 진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은 2008년 3만 대에서 지난해 25만 대 규모로 늘어났다. 삼성과 LG가 선두다툼을 하고 있고, 유진로봇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중호 에코백스 공식수임원 에스티아이그룹 대표는 “유통 채널의 구조적 거품을 걷어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물걸레나 공기청정기가 결합된 차별화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겠다”며 “3년 안에 에코백스가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톱3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외산 가전의 치명적 약점인 AS와 유통망에 대해서도 경 대표는 “픽업서비스를 통해 AS를 진행할 것이며 향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AS망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유통 채널도 현재 6개 온라인 채널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홈쇼핑과 하이마트 등 양판점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데이비드 첸 에코백스 해외사업총괄사장이 29일 서울 장충동 호텔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에코백스

---

# 이채훈 제일기획 CD “아침마다 신문 보며 영감 얻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끌어내는 법 강연**

**외국인 노동자 차별 기사 읽고**

**‘모두 살색입니다’ 공익광고 제작**

“신문을 꼭 보세요. 저도 아침마다 항상 신문을 보는데 크리에이티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채훈〈사진〉 제일기획 CD는 29일 이태원 제일기획 본사에서 열린 6월 ‘제일세미나’에서 반짝이는 크리에이티브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먼저 그는 2001년 직접 제작한 공익광고 포스터를 예로 들었다. ‘모두 살색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공익광고 포스터에는 하얀색, 살구색, 검정색의 크레파스를 내세우며, 외국인 근로자도 피부색만 다른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 공익광고는 2001년 대한민국 공익광고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침 신문에서 외국인 노동자 차별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이 광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크레파스에서 살색으로 쓰이던 이 색상은 이후, 살구색으로 바뀌었죠.”

그는 “신문을 포함해 모든 종이 매체가 아이디어에 도움이 된다”며 “한눈에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채훈 CD는 광고를 할 때 ‘순수·관찰·메모’ 3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순수라는 것은 유아 같은 발상을 의미한다. ‘너 너무 유치해’라는 말을 들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실제로 그가 언어유희를 이용해 만든 버거킹 광고는 큰 인기를 끌었다. 광고에 나온 제품 매출도 크게 뛰었다.

관찰력도 중요하다. 주변 사물과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야 한다. “광고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다기보다 세상에 흔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뻔한 걸 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아이디어는 생활 속에 떠다닙니다. 공기 반 아이디어 반이라고 할까요.”

송영록 기자 syr@



사진제공 제일기획

---

## 한국여성 인물사전 〈144〉 전밀라(全密羅)

# 기독교 평등사상 설파한 한국 첫 여성목사



전밀라(全密羅)는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목사이다. 1908년 충북 덕산에서 아버지 전연득(全軟得)과 어머니 최마리아의 5남매 가운데 첫째로 태어났다. 12살에 충주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공주의 명문 영명(永明)여고보에 입학했다. 당시 집안이 어려운 여학생들은 바느질이나 수를 놓는 일을 하며 고학을 했다. 전밀라는 선교사 집에서 허드렛일을 했다. 교장은 ‘전도부인’으로 통했던 전밀라에게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으니 신학을 공부하라고 조언했다.

1931년 서울 감리교신학교에 입학해 신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아버지가 교회의 장로로 있는 원주로 가서 전도부인으로 일했다. 지역의 교회를 다니며 여선교회 조직과 전도사업을 했다.

그 뒤 일본 도쿄(東京) 아오야마학원(青山學院) 신학부에서 유학을 했다. 1940년 귀국한 뒤 원주제일교회, 원산중앙교회 등에서 일했다. 이때 전밀라는 “언제나 보헤미안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살면서 전도사업을 해야 하는 떠도는 몸임을 새삼 느껴야 했다.”

원산에서 해방을 맞은 전밀라는 1946년에 월남했다. 전쟁 중이던 1951년부터 목사의 길을 준비했다. 여자 목사가 없었던 시절이라 주변에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전밀라도 두려움이 컸지만 이를 극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목사로 되는 것이 여간 망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여자이기 때문에 망설였어요. 아직도 남존여비라 하여 여자 목사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긴 그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까 의욕이 불끈 나기도 했지만요.”

1955년 드디어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때 명화용(明和蓉)도 여성 목사가 되었다. 1930년 기독교감리회가 여목사 제도를 만든 지 25년 만에, 전밀라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20년 만의 일이었다. 전체 신도 가운데 여성이 다수였는데도 여성 목사의 탄생은 낯설게 받아들여졌다.

목사 안수 후 인천 창영교회 부목사로 재직하다, 1960년 서울 양광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담임목사로 부임하자 일부 남녀 신도가 반발하기도 했다. 어떤 신자는 여자 목사에게 설교를 들을 수 없다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갔다. 밤늦게 술을 마시고 와 행패를 부리는 남자도 있었다.

오랫동안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들었다는 창세기 구절이 여성을 차별하는 논리로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여성 목사의 설교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컸다. 전밀라는 여성 목사가 단지 남성 목사를 보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알렸다. 교회 내의 소수자로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조용한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교회의 성차별과 편견을 깨뜨리고 기독교의 평등사상을 설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전밀라 목사는 1985년 10월 30일 눈을 감았다.

김은경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연구교수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

# 손현주, 모스크바 영화제서 남우주연상

## 김봉한 감독 ‘보통사람’ 수상…독재 시절 형사의 내면 갈등 연기



배우 손현주(52·사진)가 세계 4대 국제영화제의 하나로 꼽히는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보통사람’으로 남우주연상을 차지했다.

영화제 주최 측은 2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내 ‘로시야’(러시아) 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봉한 감독의 ‘보통사람’ 주연을 맡은 손현주를 남우주연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개봉한 보통사람은 전두환 정권의 군사독재가 절정에 달한 1980년대 후반 보통의 삶을 살아가던 강력계 형사가 정보기관(안기부)이 주목하는 연쇄살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자신의 삶과 가족을 송두리째 잃게 되는 이야기다. 손현주는 베트남전 참전군인 출신의 강력계 형사로 평범한 가장 ‘성진’의 내면적 갈등과 고뇌를 실감나게 연기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TV 탤런트이자 영화배우로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아온 손현주는 2013년 개봉한 영화 ‘숨바꼭질’에서 처음 주연을 맡은 이후 ‘악의 연대기’, ‘더 폰’ 등에서 잇따라 주연을 맡으며 주목받아 왔다.

칸, 베를린, 베니스와 더불어 세계 4대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한국 배우가 주연상을 받은 것은 1989년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강수연, 1993년 ‘살어리랏다’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이덕화 이후 처음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

# 피겨퀸 김연아, 희귀성 환아 돕기 ‘재능기부’

## ‘7전8기 가족의 기적…’ 캠페인




사진제공 바보의 나눔

‘피겨퀸’ 김연아〈사진〉가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사장 손희송 주교)이 진행하는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 환아와 가족을 돕기 위한 ‘7전8기 가족의 기적 만들기’ 캠페인에 재능기부자로 참여한다.

바보의나눔은 29일 “2010년부터 재단의 홍보대사를 맡아온 김연아가 이번 캠페인을 위한 포스터와 영상 촬영에 재능기부자로 참여했다”며 “김연아는 환아와 가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7전8기 가족의 기적 만들기’ 캠페인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아동들이 치료를 중단하는 위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모금행사다.

김하늬 기자 honey@

IBK동반자금융

56th ANNIVERSARY

# 잘하는 것부터 혁신한다!

: IBK의 첫번째 혁신 **[동반자금융]**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지켜온 IBK기업은행이
더 능동적이고 더 창의적인 **[동반자금융]**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겠습니다

**01 성장금융**
Scale-up 금융 플랫폼
창업기업의 생존을 넘어
성공을 지원하는 성장금융

**02 재도약금융**
Level-up 금융 플랫폼
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재도약금융

**03 선순환금융**
Cycle-up 금융 플랫폼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입을
지원하는 선순환금융

당신을 이롭게 금융을 혁신하다
Innovation Bank of Korea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이순원의 **세상풍경** 소설가

# 대마초와 삼굿

요즘도 가끔 남몰래 대마초를 피우다 발각돼 신문이고 텔레비전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연예인이 있다. 그런 신문 기사나 방송 뉴스를 접할 때면 집집마다 삼밭을 가꾸던 어린 시절의 일이 생각난다. 삼밭이라니까, 모르는 사람은 혹 인삼밭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인삼밭이 아니라 삼베를 얻는 삼밭 이야기이다.

우리 집도 대관령 아래 꽤 넓은 삼밭이 있었다. 그땐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 거의 모든 집이 삼을 심었다.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바로 대마초이고 마리화나이다.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잎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줄기에서 나는 껍질을 얻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억세고 지독한 모기를 얘기할 때 바닷가 모기를 첫손에 꼽는다. 바닷가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면 모기가 두꺼운 군용 모포도 뚫고 피를 빨아 먹는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억센 모기가 바로 삼밭의 모기다. 지금은 삼을 심지 않으니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성질이 모지락스럽고 질긴 사람을 '삼밭의 모기' 같다고 한다. 대마의 진을 빨아 먹은 모기이니 바닷가 모기에 댈 것이 아니다. 누런 삼베 올에 드문드문 박혀 있는 검은 점이 바로 모기가 진을 빨아 먹은 자리이다.




봄에 삼씨를 뿌리면 어른의 키보다 훨씬 크게 자란다. 가을이 되면 할아버지가 삼밭에서 삼을 잘라 온다. 밭에서 이미 우듬지와 잎을 쳐내고 줄기만 잘라서 가져온다. 그 줄기를 가마솥에 삶아 껍질을 벗겨낸다. 이 껍질을 이로 잘게 찢어 한 가닥 한 가닥 실처럼 이어 붙인다. 나중에 이걸로 베를 짜는 것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일이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삼 껍질로 겨우내 노끈을 만든다. 나일론 줄이 나오기 전에는 자리도 이 노끈으로 매고, 모심기를 할 때 쓰는 못줄도 이 노끈으로 만들었다.

좀 더 큰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삼을 쪄낸다. 그것을 삼굿이라고 부르는데, 우선 마을 한가운데 공터나 밭에 아주 커다란 웅덩이를 판다. 웅덩이 제일 아래에 장작을 가지런히 쌓고, 장작 위에 여러 층으로 자갈을 붓는다. 그 위에 삼밭에서 베어 온 삼대를 커다란 단으로 묶어 세우고 흙을 덮는다.

그런 다음 제일 밑에 깔려 있는 장작에 불을 붙여 자갈이 뜨겁게 달구어지면, 그때 미리 내 둔 구멍으로 물을 붓는다. 바짝 단 자갈에 닿은 물은 금세 증기로 변하면서 그 위에 세워 둔 삼대를 삶고 쪄내듯 익히는 것이다. 이때 감자와 옥수수 같은 것도 함께 집어 넣어 익힌다. 감자와 옥수수와 삼이 완전히 익으면 흙을 헤치고 삼대를 꺼낸다.

이 공정을 삼굿이라고 불렀다. 삼을 찌는 일인데 삼찜이 아니라 삼굿이라고 불렀던 것은 삼을 찔 때 부정 타지 말라고 고사도 함께 지내기 때문이다. 삼대는 껍질을 벗기면 아주 하얀 모습으로 남는데 이걸 겨릅대라고 불렀다. 이걸로 울타리도 치고, 지붕에도 올리고, 발처럼 엮어서 가림막으로도 사용했다. 예전에는 농경 생산의 중요한 과정으로 삼굿을 했고, 지금은 사라져가는 옛일을 되살리는 축제처럼 삼굿을 하고 있다.

동네마다 삼밭이 흔했는데도 마을 사람 누구도 그걸 담배 대신, 혹은 담배처럼 피우지 않았다. 그 잎을 '대마초'라고 부르는 사람도, 그걸 담배처럼 피울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귀한 의복을 만드는 원료로만 여겼다. 사람들이 어리숙했던 시절이 아니라 모두 선했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貨殖具案 (화식구안)



하태형 수원대 특임교수 前 현대경제연구원장

# 특목고·자사고 폐지가 能事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이 좁아 그런지 유독 평준화(平準化)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 같다. 미국, 중국처럼 땅이 넓은 대국들은 지역별로 무슨 차이가 나거나 개인별로 어떤 능력 차이가 나타나도 대체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잘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식이 다른 집 애들보다 공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듯 보이면 이를 견디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고교 입학이 과열현상을 빚자 고교 평준화라는 정책을 1974년 전격적으로 도입, 실시하였다. 고교별로 학력 차이가 나는 것을 시정하고자 한 조치였다. 그 정책은 성공하였는가? 예전의 명문고는 사실상 사라졌지만 신흥 명문고인 외고와 과학고가 등장하였고, 이들 신흥 특목고의 명문대 진학률은 과거 명문고 시절보다 훨씬 더 심해진 결과를 낳았다. 과거엔 지방 학생들도 지방 명문고를 통해 서울의 명문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방 학생들이 서울의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진 것이다.

그뿐인가? 과거에는 지방별로 교육거점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들 거점이 일시에 사라지자 사람들은 강남의 교육거점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강남 8학군'에 대한 교육 수요가 폭발하는 계기가 되어 강남의 집값을 천정부지로 밀어올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1980년 집권한 신군부는 당시 '불법과외'를 망국병(亡國病)이라고 규정하고 과외교습을 일절 금지하는 서슬퍼런 조치를 내린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과외 금지 조치는 그 뒤 유명무실해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명문 과외학원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켜 사람들은 대치동 소재 학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까지 서슴지 않게 되고, 대입 학원이 준재벌화하는 지구상 유례없는 기현상(奇現象)을 낳게 된다.

최근 지명된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특목고인 외고, 국제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모양이다. 그의 생각과 달리 서울에서는 외고·자사고 5곳 모두 재지정됐는데, 특목고 폐지는 현대판 고교 평준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결과는 일시적일 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신흥 명문고가 생기고 이 명문고가 있는 새로운 '강남 8학군'에 대한 뜨거운 수요가 나타날 게 자명하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고교 평준화를 부르짖는 사람들마저도 그 속마음에는 내 자식이 다른 사람들 자식보다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하는 원초적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무시한 어떠한 평준화 정책도 결국은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를 좀 더 들어보자. 노무현 정부는 당시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정치 목표를 내세웠고, 그 일환으로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했다.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결과는 어찌되었는가? 논밭을 소유한 현지인들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이라는 돈벼락을 맞았다.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그 천문학적 보상금으로 강남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강남과 지방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점이다.

중국의 예를 들어보자. 중국은 알다시피 공산혁명이 성공한 나라이다. 공산주의(共產主義)란 무엇인가?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없이 모두 똑같이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가지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이상적인 정치이념이 아닌가? 그러면 그 결과는 어찌되었는가? 경제학에서 국가별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중국은 대략 0.5 정도를 기록,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불평등한 나라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0.3 정도를 기록, 주요국 가운데에서는 불평등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오히려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결과일까?

## 한 컷

### 하늘을 내려다보다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많을 테지요. 비행기에 오르면 피곤에 지쳐 잠을 청하시나요? 이번 휴갓길에는 비행기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세요. 휴가지의 풍경 그 이상의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하는 행운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상공에 구름이 만들어낸 장관입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다 건진 행운인 '예상밖의 한 컷'입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 온라인 와글와글

### 흡연경고 그림 보고 성인 절반 금연 결심 "피울 사람은 다 피우던데…"




지난해 12월부터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성을 알리고자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넣은 흡연경고그림을 보고 성인 흡연자 절반가량이 금연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성인 흡연자의 49.9%가 경고그림을 보고 금연 결심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비흡연 성인의 81.6%, 비흡연 청소년의 77.5%가 경고그림을 보고 나서 "앞으로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고 응답했다. 10종의 경고그림별로 효과를 살펴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고통(환부)을 나타낸 주제(병변)가 아동, 임산부 등 대상별로 흡연의 폐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주제(비병변)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은 "혐오스러운 그림 중에 그나마 나은 거 골라서 피운다", "희대의 헛소리네. 피울 사람은 다 피운다", "담배 케이스만 많이 팔렸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 카드로 보는 세상




올여름 휴가지를 강원도로 계획하고 있다면 다이내믹한 체험 여행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강원도의 표정은 정적이고 아름다운 산과 강, 계곡만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자연과 함께하며 즐길 수 있는 레저활동도 여럿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소개하는 미리 가 보는 평창올림픽 개최지,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레저 여행을 소개합니다. 직접 노를 저어 가며 즐기는 카누 타기를 비롯해 짚와이어, 래프팅, 동굴탐험, 자동차 레이싱 등 '강원도의 즐거운 힘'입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https://goo.gl/udjJc2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젊다!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접목 연예뉴스
비즈엔터
2013년 10월 15일 오픈

이슈&인물

# "公的 임대주택은 복지…획기적으로 예산 늘리고 투자해야"

서민 주거안정 어떻게

김 동 주
국토연구원장

대담=김덕헌 정치경제부장

**전세의 월세 전환 빠르게 늘며**
**가처분 소득 줄어 경제 악영향**
**전·월세시장 안정이 중요한 때**
**주거급여 지원 정책도 마련을**

**도시재생은 생활밀착형 정비**
**4차 산업혁명·빅데이터 활용**
**지역·도시발전 효과적 연구**
**내주 '정책 방향' 세미나 열어**

### 26년간 국토발전 연구 '국토通'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연세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뒤 동 대학원에서 도시계획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원에서 지역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다.

연구원으로 시작해 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2015년 6월 김경환 원장에 이어 제15대 국토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원장은 26년간 국토연에서 일하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수립연구'와 '글로벌 시대의 창조적 국토경영전략 연구', '국토발전 미래 어젠다와 정책방향' 등을 수행한 '국토통'으로 평가받는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새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 정책목표를 볼 때 전·월세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며 "사회간접자본(SOC)은 줄이더라도 공적 임대주택은 복지 정책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주 원장은 20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세입자의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소비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을 앞둔 상황이었다. 김현미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집 없는 설움에 대해 강조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그만큼 새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장은 "예전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 물리적인 수만 봤는데 어떤 계층이 어려운지, 어떤 계층이 빠져 있는지 등을 살펴 공적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급여 지원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절대적인 문제는 해소됐으니 질적 측면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선별적인 맞춤형 정책"이라며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얘기도 나오고 경기 광명 이외 다른 지역으로 과열이 옮겨 갈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추가적인 대책을 내면 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7월 4일 '새 정부 국토도시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 중"이라며 "기존 인프라 개선 중심에서 주거를 포함한 지역 맞춤형 개발 쪽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6·19 부동산 대책은 선별적 맞춤형 정책**

**△도시재생이 문재인 정부의 관심사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관심을 두는 사업 분야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다. 도시재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도시재생은 과거 정부도 했다. 신도시 시대를 지나면서 자연스레 도시재생이 이슈가 됐다. 국토부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만들고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공모식으로 선도사업 1·2차로 해왔고 46곳이 정해졌다. '대규모 도시개발' 이런 식의 복합개발을 나눠서 했는데, 새 정부는 500개를 매년 10조 원씩 사업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인프라 개선 중심에서 주거를 같이 끼워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역 맞춤형 생활 개선 등 정비 위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은 정비하는 건데, 기존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차이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 세분화해서 6개 유형으로 나눈다. 생활밀착형 정비라고 볼 수 있다. 재개발보다는 기존 주거를 살리면서 진행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

**△도시재생이 서민 주거 안정의 기본 목표를 얼마나 충족해 줄까. 물론 임대주택 정책도 병행하겠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

"정비나 이런 부분이라 도시재생으로 주택을 다 커버할 수 없다. 재생은 성과가 안 보인다. 전면 재개발식으로 하면 성과가 나오는데 성과를 살리면서 하는 게 어렵다. 운영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기본도 닦아야 한다. 정부도 고민하고 있을 거다. 그렇다고 성과 지향으로 가면 밀어붙이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

**△오래된 주택은 안전 부분이 취약하다. 국가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정비가 필요하다**

"건물 노후화 자료가 있는데, 최근 건물들은 지진 예방이 돼 있지만 오래된 주택은 안전이 취약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스펙트럼이 넓어서 일시에 할 수 없다.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해야 한다. 건축 부분이나 수방제 등 각 부처가 협업해서 하는 것이 좋다. 재생이 중요한 것이다. 새로 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첨단화해야 한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짓거나 보수하기 어렵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첨단센서만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잘 배치해서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비용을 줄여가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6·19 부동산 대책 평가는**

"이 시점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본다. 일부에선 '풍선효과 우려',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한다. 미국 금리 인상과 지난 2~3년 동안 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하반기가 만만치 않다. 부동산 시장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청약조정대상을 37곳에서 40곳으로 늘렸는데, 데이터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다. 실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선별적인 맞춤형 정책이다. 다만 풍선효과가 걱정인데, 경기 광명 외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추가적인 대책을 내면 된다. 그렇다고 미리 전국을 꽁꽁 묶을 순 없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은 줄이더라도 공적 임대주택은 복지정책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 삶과 직결된 SOC투자 계속해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금융규제를 풀어서 경기부양을 했다. 금융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 열기를 낮추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성을 보면 0.3~0.6%포인트 하락하고 금리는 0.5~1%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친다. 금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 열기는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금융 정책은 요즘엔 소프트한 정책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별적인 조치가 들어갔는데, 유동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정부의 주택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주택보급률이 늘었지만 실제 자가보유율은 낮다. 당장 정책을 바꾸는 건 무리가 있고 공급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내놓는 정책이 주로 수요 부분이다. 공급도 꾸준히 늘리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주택 공급 기조를 바꾸기에는 주택보급률 수치만 갖고 하기 어렵다. 어떤 계층이 어렵고, 어떤 계층이 빠져 있는지를 보고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SOC 예산을 줄인다는 방침인데**

"SOC는 총량적으로 줄여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너무 자르는 식은 문제가 있다. SOC는 도시 경쟁력, 국민의 삶의 질과 관계돼 있다. 그런 투자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

**△전세 세입자의 월세 전환이 늘고 있다. 국민 주거 안정 정책목표를 볼 때 정책을 바꿔야 하나**

"전·월세 변화가 급속하다. 비용 지출이 많아지면 가처분소득이 줄고, 지출도 줄어 경제에 영향을 준다.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SOC는 줄여도 공공임대주택 같은 공적 임대주택은 복지예산으로 보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 획기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 전체 구조 체질 개선해야 할 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

"수도권 규제는 1984년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시작됐는데 정답은 없다. 다만 수도권 입장에서는 완화를 얘기할 수 있는데 국토 전체를 보면 어렵다. 해외 유턴기업 문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는 지방에서도 인센티브 등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해서 지방에 우선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분권과 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상생발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이다. 또 과거 10년간 부분적으로 풀린 부분도 있다."

**△국토 분야 규제 완화는 어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 자율주행차는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할 수 있다. 규제를 완화해야 드론을 통한 택배, 수송이 더 확장될 수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총리급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얼마 전에 보니까 드론이 63빌딩을 타고 올라가다가 건물과 부딪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다."

**△새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과제는**

"7월 4일 '새 정부의 국토도시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라는 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균형 발전, 혁신도시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 등의 내용이 다뤄진다.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지역 정책도 있다. 과거에는 계획 수립을 3년 혹은 5년으로 하다 보니 타이밍이 늦었다. 보통 3년 전 자료로 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주택거래 등 자료를 통해 바로 정책을 만들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지역 발전, 도시 발전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교통, 도시, 건축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식의 도시재생도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회 전체 구조가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정리=곽도흔 기자 sogood@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길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58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64 산업2부 (02)799-2641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나는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하고 싶다
화제의 신간
스피치의 여왕이 전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던 특별한 기술!
대한민국 말하기 교과서 · 리더들의 필독서 · 취준생들의 필독서
인생 역전의 비결 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라!
서미림지음 | 232쪽 | 13,500원
무한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전화 (02)322-6144 | 팩스 02-325-6143




이효리 신곡 '서울(Seoul)'의 티저 영상. 사진제공 키위미디어

# 반가워요… 여전히

## '데뷔 20년차' 이효리 정규 6집으로 컴백
## 방송 출연마다 히트… '명불허전 예능퀸'

강산이 2번이나 바뀌었지만 이효리는 역시 이효리다.

이효리가 28일 정규 6집 선공개곡 '서울'을 발표하고 음원차트 정상에 올랐다. 새 앨범 발표에 앞서 jtbc '효리네 민박'과 MBC '무한도전'에 출연하며 화려한 귀환을 알렸던 이효리는 앞으로 MBC '라디오스타', KBS2 '해피투게더 시즌3' 등 각 방송사 간판급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앞두고 있다. '예능퀸'의 왕림에 방송가도 분주하다. 어떤 프로그램이 이효리의 '은혜'(?)를 입을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효리는 1998년 걸그룹 핑클로 데뷔해 올해로 데뷔 20년차 가수다. 핑클은 데뷔곡 'Blue rain'부터 '루비'까지 앨범마다 큰 영향력을 미쳤다.

핑클 4집 앨범 발표 후 2003년 이효리는 홀로서기에 나섰다. H.O.T., 젝스키스, god 등 함께 활동했던 1세대 아이돌 멤버들이 팀 해체 후 홀로서기에 나섰다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기도 했지만, 이효리는 달랐다. '효리처럼'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효리 신드롬이 일어났다. 첫 솔로 앨범 타이틀곡 '10Minutes'로 그해 연말 가요 시상식 대상 트로피를 휩쓸었다.

홀로 서기 이후 14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이효리는 흔들림이 없다. 2013년 가수 이상순과 결혼 후 제주도에서 살면서 연예계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효리라는 이름이 가진 브랜드 파워는 여전하다.

2014년 SBS '매직아이' 이후 3년 만에 내놓은 예능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은 첫 방송부터 시청률 5.8%(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기준)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대박'을 터트렸다. 이효리가 등장했던 회차의 '무한도전'은 비드라마 화제성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효리 측은 비즈엔터에 "결혼 이후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이효리 본인도 소통이 뜸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방송 출연도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년째 정상을 지키며 예능에서 군림하는 이효리다. 이 흐름이 7월 4일 공개될 앨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김소연 기자 sue123@



# "우리가 예능숙맥? 흣, 아닙죠~"

**인터뷰** 걸그룹 블랙핑크

'센 언니' 아니 '센 동생'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럴 수가. 귀엽고 발랄하기까지 하다. 무대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방송도 잘 해낼 수 있단다. 이 정도면 '만능' 걸그룹이다. 최근 새로움으로 무장해 돌아온 블랙핑크를 만났다.

블랙핑크는 22일 신곡 '마지막처럼'을 발표했다. 지난해 '스퀘어 투(SQUARE TWO)'를 발표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내놓는 신곡이다. 블랙핑크는 "오랜만에 컴백하는 만큼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금까지 보여 드렸던 모습보다 훨씬 소녀 같고 발랄한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는 노래입니다. 굳이 꼽자면 핑크에 가까워요. 그동안에는 세 보일 수 있는,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주로 소화했는데 '마지막처럼'은 많은 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안무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지수)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이어오던 '걸 크러시' 이미지를 완전히 깨뜨린 것은 아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가사에 담았지만,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어조에 녹아 있는 대담함과 노래 전반에 흐르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더욱 직관적으로 와 닿는다.

제니는 "계속 '귀엽다'고 어필했지만 사실 걸크러시한 느낌을 보여 드리는 게 우리에겐 더욱 편하다. 귀여운 모습을 보여 드리는 건 힘들다"고 말하면서 수줍게 웃었다. 그러면서 "'걸크러시' 이미지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보컬적인 부분이나 리사의 영어 랩이 퍼포먼스와 어우러지면 더욱 파워풀한 무대가 완성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지난해 8월 정식 데뷔한 블랙핑크는 데뷔곡 '붐바야', '휘파람'으로 국내 음원 차트 최상위권을 석권하고 데뷔 최단 기간 내에 음악방송 1위 트로피까지 손에 넣었다. 같은 해 11월 발표한 '불장난', '스테이(STAY)'의 성적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발표한 4곡 가운데 3곡의 뮤직비디오가 조회 수 1억 뷰를 돌파했다. 근래 데뷔한 걸그룹 가운데 단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 지난주 신곡 '마지막처럼' 발표
### '센 언니' 이미지 깨고 '발랄소녀' 변신
### 숫기 없는 예능 안녕… 숨겨진 '핑크' 발산
### 팀 알리는 게 1순위… '만능 걸그룹' 될 것

"팀을 알리는 것이 1순위예요. 그 후에는 우리의 이미지들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싶어요.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숫기 없고 부끄러워하는 모습만 보여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예능도 잘하고 라디오도 잘하고 무대도 잘하는 걸그룹이라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어요. 여러 매력이 있는 팀이라는 걸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니)

블랙핑크는 활동 영역을 해외로 넓힌다. 7월에는 일본 부도칸에서 첫 쇼케이스가 예정돼 있다. 제니는 "일본어 공부는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꾸준히 해왔다"면서 "첫 해외활동이라 굉장히 설레고 떨린다. 한국 팬들이 봤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언제나 '믿고 듣는 걸그룹'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처럼'이 그런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켜줄 수 있는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신나고 싶을 땐 흥겨움을 주고… 어떤 영역, 어떤 장르에서든 대중의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그룹이 되고 싶어요." (제니)

이은호 기자 wild37@·사진제공 YG엔터테인먼트



'복면가왕'에 출연한 서민정 사진제공 MBC

# 반가워요… 하지만

## 서민정, '하이킥' 이후 10년만에 방송 출연
## 노래경연 '복면가왕'의 정체성엔 아쉬움

음악 프로그램일까, 예능 프로그램일까. MBC '일밤-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이하 복면가왕)'이 프로그램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이다.

25일 방송된'복면가왕'에는 배우 서민정이 감자튀김이라는 별명으로 출연해 시청자들을 만났다.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이후 무려 10년 만의 방송 출연. 현장에 있던 관객들과 시청자들의 반응은 모두 폭발적이었다. 오랜 시간 시청률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던 '복면가왕'은 이날 1부 7.3%, 2부 10.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서민정의 방송 출연이 반갑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음치'로 잘 알려진 그가 '복면가왕'에 얼마나 어울리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민정의 출연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다시 쓰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면가왕'은 '나는 가수다'에 이어 음악 예능의 전성기를 이끈 프로그램이다. 음악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이 '가수'에게 출연 권한을 한정했던 것과 달리 '복면가왕'은 출연자들의 활동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하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경연'이라는 포맷이나 '편견을 벗은 진짜 대결'이라는 캐치프레이즈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서민정 출연을 둘러싼 딜레마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실력이 달리는 인물의 출연은 과연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 혹자는 "음치는 출연할 수 없다는 것마저 편견"이라고 지적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프로그램이 이어왔던 정체성을, 나아가 프로그램의 의도를 전복시킬 수 있는 주장이다.

낮은 인지도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던 밴드 국카스텐의 보컬 하현우나 아이돌 그룹이라는 편견 때문에 제대로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비투비 육성재는 '복면가왕'을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음악을 향한 진심이 시청자들을 감화시킨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서민정의 출연이 반가운 것은 그가 '오랜만에' 방송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래 실력 혹은 음악에 대한 애정과 관계없이 그저 출연자들을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요 역할이 되는 순간, '복면가왕'은 '음악 예능'이 아니라 '예능'이 된다. 음악은 허울로 남을 뿐이다.

서민정으로 대표되는 추억 속 스타들의 출연은, '복면가왕'이 편견 없는 노래 대결에서 벗어나 화제성 높은 인물들의 연예계 복귀 도우미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지표처럼 보인다.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음악'에 무게중심을 뒀던 초창기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복면가왕'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이은호 기자 wild37@



# 치정·불륜·복수… 무릎치며 보게 되니 '막장은 살아있다'

## 롤러코스터 전개·김순옥 필력 더해지며
## SBS 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 흥행 기조

김순옥 작가의 신작 '언니는 살아있다'가 흥행 기조를 보이고 있다. 시청률에서도 동시간대 경쟁작을 평정했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꾸준하다.

SBS 토요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는 생사가 갈리는 긴박한 순간에 함께 있던 강하리(김주현 분)·김은향(오윤아 분)·민들레(장서희 분)가 서로 의기투합하면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분명 이 드라마는 흔히 말하는 '막장'임에 틀림없다. 출생의 비밀은 물론 치정, 불륜, 복수, 성공을 위한 욕망이 뒤엉켜 있다. 이 모든 요소를 품은 극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돼 시청자를 보기 좋게 홀린다. 세 여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세 갈래의 복수는 서로간의 연관성을 갖고 이어지며, 이에 맞서는 세 명의 악녀는 그들 나름대로의 함정을 파며 악행을 이어간다.

슬픔과 분노, 사랑의 감정이 큰 진폭으로 전달됨에 따라 시청자들은 저도 모르게 '언니는 살아있다'의 세계에 빠지게 된다. 세 여자의 복수극의 성공을 바라며 어느새 드라마 전개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다. 김순옥 작가 특유의 개성 강한 캐릭터들은 크고 작은 갈등요소와 로맨스 기조를 숨긴 채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극에 양념을 친다. 복수극과 함께 이뤄지는 러브 라인은 극에 설렘을 자아낸다.

현재 극에 산재해 있는 복수는 다양하다. 엄마의 원수를 갚으려는 민들레(장서희 분), 그런 민들레를 사랑하는 구 회장(손창민 분)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계화(양정아 분)의 악행이 이어지고 있다. 남편 추태수(박광현 분)의 불륜으로 딸을 잃은 김은향(오윤아 분)은 그의 불륜 상대 구세경(손여은 분)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남편 조환승(송종호 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또 다른 악녀 양달희(다솜 분)는 남자친구였던 설기찬(이지훈 분)이 연구한 자료를 빼돌려 세라박(송하윤 분)의 신분을 빌려 공룡그룹에 입사한다. 강하리(김주현 분)는 결혼식 당일 자신의 남편을 죽게 만든 이(양달희)를 찾고자 고군분투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룡그룹 후계자 구세준(조윤우 분)-설기찬과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양달희는 구세준의 정체를 알고 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각자의 복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흥미진진한 전개로 펼쳐진다. 장서희는 "김순옥 작가 특유의 장점은 뒷심이 강하다는 거다. 아직 내용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청률은 오를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흥행을 점쳤다.

김예슬 기자 yeye@

# 지루해 진 한국영화




**영화의 권력, 창작자→제작자 이동**
**돈 되는 영화에만 투자자들 몰려**
**다수의 취향에 맞는 영화만 제작**

**올드보이·살인의추억·장화홍련…**
**창의적 수작 쏟아지던 과거 기억해야**

2003년도는 '올드보이'(박찬욱)·'살인의 추억'(봉준호)·'장화홍련'(김지운)·'지구를 지켜라'(장준환) 등의 수작이 쏟아져 나온, 그러니까 한국 영화 에너지가 기이하게 뜨거웠던 해였다. 흥행과 비평이 사이좋게 충무로에 꽃을 피웠던 시절.

지난해 '아가씨'로 만난 박찬욱 감독은 그 시대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그때는 예술적 야심이 큰 프로듀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거 아니야?' 싶은 기획을 밀어붙이는 동력이 그들에게 있었고, 창작자들에게 허용된 것들이 많았죠. 만약 지금의 시스템이었다면 '올드보이'는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데뷔작을 실패한 (나 같은) 감독에게 그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결국 재능이나 실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대를 잘 만나야 하는 게 있어요."

박찬욱 감독이 언급한 지금의 시스템은 창작자들에게 어떠한가. 2003년 이후 한국 영화의 권력은 창작자들이 아닌 제작자나 자본을 가진 대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투심(투자심리)이라는 것도 생겼다. '어떤 영화에 투자할까'를 자본가들이 모여서 따지는 것인데, 좋게 말해서 '심리'이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검열'이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영화 대신, 대중의 취향에 맞는 안정적인 영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영화는 하향 평준화됐다.

그 부작용은 올 상반기 극에 달한 느낌이다. 감독의 이름을 지워도 무방한 개성 없는 영화들이 쏟아졌고, 여기저기에서 "한국 영화, 재미없다" "지루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나홍진('곡성'), 박찬욱('아가씨') 등의 감독이 그나마 제 몫을 해 줬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허리가 없었던 것도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먼저 1월 극장가를 강타한 '마스터'를 보자. 영화는 전국 7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작품적인 면에서 지금의 한국 영화가 지닌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모두 드러내는 결과물이었다. 143분이라는 영화의 긴 러닝타임은 자신감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이병헌 강동원 김우빈 등의 A급 배우를 배려하느라 자르지 못한 혐의가 짙었다. 화면은 반지르르했지만 내러티브상에서 구멍을 드러냈다. 스타 캐스팅이 작품을 앞서간 경우다. '마스터'에서 감독의 존재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전국 780만 관객을 동원한 '공조'는 흥행을 위한 요소를 모아모아 만든 기획 영화였다. 조기 대선으로 덩달아 뜨거워졌던 3월 극장가 각 배급사 선수들로 나온 '임금님의 사건수첩'(CJ)·'보안관'(롯데)·'특별시민'(쇼박스) 역시 투심과 제작 과정에서 반질반질하게 깎인 냄새가 강하게 났다. 투자자의 이름이 창작자 이름보다 먼저 오프닝 크레딧에 올라가는 지금의 비이상적인 한국 영화 시장에서 그리 놀랍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올 상반기를 마감하는 '리얼'은 더욱 심각하다. 촬영 도중 감독이 교체되는 것도 모자라 연출 경험이 전무한 제작사 대표가 사령탑에 대신 앉았다. 창작이 어디까지 훼손됐는가를 드러내는 일대 사건이다.

분명 좋은 창작자들은 어딘가에 있다. 그러나 그들의 개성이 힘을 발휘하기에 지금의 시장은 그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반질반질한 게 대세인 주류 영화 흐름에 작가의 울퉁불퉁한 재능은 깎이고 깎여 가공품처럼 처리돼 지금 우리에게 당도하고 있다. 상반기 한국 영화, 정말 재미없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 올 상반기 드라마 '풍요 속 빈곤'


OCN '애타는 로맨스'


KBS2 '최고의 한방'

**현재 방영 중인 일일드라마만 10여편**
**미니시리즈·아침…웹드라마까지 봇물**
**TV조선·채널A 등도 드라마 부활 예고**

**제작수에 비해 인력·주연급 배우들 부족**
**자상파 미니시리즈도 시청률 10% 힘들어**

드라마는 많지만, 사랑받는 작품은 없다.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만 일일 평균 10편. 미니시리즈, 아침드라마, 저녁일일드라마 등 각 방송사별로 매일 3편 이상의 작품이 방영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신설될 드라마 편성 시간대를 고려하면 일일 평균 작품 수는 더욱 늘어난다. 최근 봇물을 이루고 있는 웹드라마까지 더하면 드라마가 넘치다 못해 터져나가고 있다.

가뜩이나 많았던 드라마가 올해 "더 많아졌다"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엔 드라마 편성 시간이 늘어난 것과 관련 깊다. CJ E&M은 올해부터 tvN뿐 아니라 OCN도 월화드라마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KBS는 '최고의 한방'을 시작으로 금토드라마 시간대를 신설했다. JTBC도 11월부터 기존의 금토드라마 외 시간대를 신설해 드라마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 초 재승인 심사에서 위태로운 평가를 받았던 TV조선을 비롯한 채널A, MBN 종편 채널들도 올 연말까지 드라마 부활을 예고했다. 이미 각 종편 방송사들은 올해 방영을 목표로 기획안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일회성으로 드라마를 선보이는 것과 고정적인 편성 시간대를 갖고 꾸준히 작품을 선보이는 것엔 차이가 크다"며 "지상파뿐 아니라 케이블, 종편까지 꾸준하게 드라마를 편성하기 시작하면서 드라마 제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넘쳐나는 드라마 속에 정작 국민 드라마는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KBS2 '태양의 후예', '구르미 그린 달빛', tvN '도깨비'처럼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배우도 올 상반기에는 없었다. 작품 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불과 1년 전과 비교하면 아쉬운 성적이다.

여기에 제작 편수에 비해 제작 인력도 부족하고, 실력자들은 더 구하기 힘들어 작품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드라마를 만들 사람을 구하느라 여기저기서 비상이다. 주연급 배우 캐스팅뿐 아니라 스태프 팀 구성부터 난관인 것. 최근 편성을 받은 한 드라마 PD는 "일 좀 한다는 선수들은 이미 차기작, 차차기작까지 다 예약돼 있다"며 "당장 촬영하고 편집할 사람을 구하는 것부터 큰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PD는 "작가와 미팅을 하고, 이야기를 기획할 때부터 연출팀을 구했다"며 "거의 1년 전부터 '작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야 겨우 마음 맞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숙련된 제작진은 부족하다 보니 높아진 시청자들의 입맛을 맞추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지상파 월화드라마, 수목드라마 시청률 1등 작품도 10%를 겨우 넘기는 상황이다.

악순환으로 광고 판매는 줄어들고 있다. 광고주들 입장에선 광고할 드라마는 넘쳐나고, 시청률이 높지 않는 작품에 굳이 광고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요즘은 시청률 1위 드라마도 광고 완판이 쉽지 않다"며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망할 거 같다"고 자조하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

**영화 '옥자'**

# 친구? 식량?… 자본주의 탐욕이 만든 변종

**우스꽝스러운 봉준호식 블랙 코미디 전면에**
**캐릭터들 흥미롭지만 메시지 훼손 인상도**



봉준호 감독은 전작 '설국열차' 개봉 당시, "열차 안에 동물칸 하나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일까. '옥자'를 보며 '설국열차'에서 성사시키지 못한 동물칸의 확장 버전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설국열차를 추동하는 에너지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향한 비판이었듯 '옥자' 저변에 깔린 것 역시 자본주의 시대의 탐욕이다. 만약 '옥자'가 '설국열차' 안에 들어앉았다면, 꼬리칸 사람들의 바퀴벌레를 으깨서 만든 양갱(단백질 블록)이 아닌 무수히 많은 옥자들을 먹을 수 있었을까.

강원도 산골소녀 미자(안서현)가 10년간 동거동락한 슈퍼돼지 옥자를 찾아 미국 뉴욕으로 간다는 글로벌 프로젝트 '옥자'는 크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미자의 세계, 강원도 산골이다. 자연과 사랑이 피어나는 이곳은 슈퍼돼지 옥자에겐 그야말로 무릉도원이다. 이 세계에서 옥자는 인간의 친구이자 가족이고 정신적인 교감의 대상이다.

그 대척점에 루시 미란도(틸다 스윈튼)의 세계가 있다. 이곳에서 옥자는 식량이다. 레스토랑에서 나이프를 썰며 "육즙이 좋네"라는 충만감을 줄 수 있는 질 좋은 품종이다. 인간의 미각을 위한 도살을 목표로 사육되는 이곳은 옥자에게 공동묘지나 다름없다.

실제로 영화는 후반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는 살육 현장을 스크린 가득 품는다. 도축실로 들어가는 좁은 문 앞에서 슬픈 울음을 쏟아내는 무수한 옥자들은 과거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 흐느꼈던 어떤 이들의 모습을 불러 세운다. 이 그로테스크하면서도 묵시론적인 그림은 촬영감독 다리우스 콘지가 매만진 다크한 질감 안에서 한층 더 싸늘한 느낌을 자아낸다. 디테일한 연출에 남다른 감각을 지닌 봉준호의 장기가 빛을 발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후반 도살장 장면을 제외하면 '옥자'의 리듬은 내내 경쾌하다. 봉준호의 특징이라 명명되는 '봉준호식 블랙코미디'가 전면에 선 영화는 그래서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소동극처럼 보이기도 한다. 바보 캐릭터 만들기에 각별한 소질을 지닌 봉준호는 이번에는 그 재능을 조금 더 뽐내는 듯 보인다. 괴기한 느낌의 루시 미란도는 물론이고, 미자와 옥자를 돕는 비밀동물보호단체(ALF) 캐릭터 대부분을 희한하게 비틀었다. 다만 나사 하나 빠진 듯한 이러한 캐릭터들은 그 자체로는 상당히 흥미로우나 그것이 영화가 품은 거대 메시지의 활력을 다소 잡아먹는 인상을 안기기도 한다.

영화 안에서 시스템과 혈투를 벌이는 '옥자'는 영화 밖에서도 다른 의미의 (극장 배급) 시스템들과 뒤엉키며 가볍지 않은 화두를 던지고 있다. 온라인 공개가 목적인 미국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를 통해 제작된 '옥자'는 결국 멀티플렉스를 제외한 작은 극장들에서만 공개된다. 넷플릭스의 지원 속에서 탄생하긴 했지만 봉준호 감독은 '옥자'를 4K 디지털영화로 만들었다. 2.35:1의 시네마스코프 화면비를 선택하기도 했다. 영화 상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여러 의미에서 '옥자'는 변종인 셈이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driving science



처음 보는 아이를 걱정하는 일

내 일도 아닌데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당신도 한 번쯤은 해본 일들입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당신의 마음에서
현대모비스는 미래를 배웁니다

HYUNDAI MOBIS

www.mobis.co.kr

# 기술력·브랜드… 불황 이긴 '대박의 법칙'

## 가전·車·금융·유통 등 24개 제품 선정

몇 년째 불황이 이어지면서 소비가 주춤했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력으로 중무장한 제품에는 어김없이 지갑이 열렸다. 오랫동안 쌓아온 브랜드의 힘이 바탕이 된 제품들의 인기는 불황기를 맞아 오히려 더 위력을 발휘했다. 히트 상품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투데이는 2017년 상반기에 소비자들을 열광케 한 히트상품 24개를 선정했다. 가전·자동차·은행·화장품·식품·홈쇼핑·제약·생활용품·골프용품 등 다양한 업종을 아울렀다. 부문별 비슷한 후보 상품이 많아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평가 항목을 더욱 세분화해 엄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가전 부문에서는 삼성전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QLED TV, 갤럭시S8·S8+, 플렉스워시 세탁기, 무풍에어컨이 히트상품으로 선정돼 강한 저력을 과시했다. LG전자는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와 '디오스 얼음정수기 냉장고'가 히트상품에 이름을 올렸다.

자동차에서는 기아자동차 '니로 PHEV & 2018'가 선정됐다. 금융 부문에서는 IBK기업은행 '올포비즈 예금', KB국민은행 '생활금융 플랫폼 Liiv'가 뽑혔다.

가장 많은 히트상품은 내수 시장에 민감한 유통업종에서 배출됐다. 화장품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마린 링클 쎄라 앰플'이 선정됐고, 식품분야는 농심 '참치마요 큰사발', 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한국야쿠르트 '콜드브루 by 바빈스키', SPC '햄 비어쉥켄'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홈쇼핑 분야에선 CJ오쇼핑이 선정됐다.

제약에서는 동아제약 '베나치오', 비타민하우스 '시베리안 차가버섯', 종근당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한미약품 '나인 나인정'이 선정됐다. 생활용품은 SK매직 'WPUA 400C 정수기', 코이컴퍼니 '웽거(WENGER)'가 뽑혔다. 골프용품 분야는 뱅골프코리아 '롱디스턴스 라이트', 아사가오골프 '프라우디아 24K GOLD'가 눈길을 끌었다.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히트상품'의 면면을 소개한다.

산업1·2부, 기업금융부

| 부문 | 회사명 | 상품명 |
|---|---|---|
| 가전 | 삼성전자 | 갤럭시 S8, 갤럭시 S8+ |
| | 삼성전자 | QLED TV |
| | 삼성전자 | 플렉스워시 세탁기 |
| | 삼성전자 | 무풍 에어컨 |
| | LG전자 |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
| | LG전자 | 디오스 얼음정수기 냉장고 |
| 자동차 | 기아자동차 | 니로 PHEV & 2018 |
| 은행 | IBK기업은행 | 올포비즈 예금 |
| | KB국민은행 | 생활금융 플랫폼 Liiv |
| 화장품 | 아모레퍼시픽 | 마린 링클 쎄라 앰플 |
| 식품 | 농심 | 참치마요 큰사발 |
| | 동서식품 | 맥심 모카골드 |
| | 롯데제과 | 요하이, 유산균 쇼콜라 |
| | 한국야쿠르트 | 콜드브루 by 바빈스키 |
| | SPC | 햄 비어쉥켄 |
| 홈쇼핑 | CJ오쇼핑 | VW베라왕 |
| 제약 | 동아제약 | 베나치오 |
| | 비타민하우스 | 시베리안 차가버섯 |
| | 종근당 |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
| | 한미약품 | 나인 나인정 |
| 생활용품 | SK매직 | WPUA 400C 정수기 |
| | 코이컴퍼니 | 웽거(WENGER) |
| 골프용품 | 뱅골프코리아 | 롱디스턴스 라이트 |
| | 아사가오골프 | 프라우디아 24K GOLD |



가전 삼성전자 **갤럭시S8·S8+**

## 빅스비·생체 인식… 스마트폰 '끝판왕'

삼성전자 '갤럭시S8'과 '갤럭시S8+'가 출시 초반부터 역대 기록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갤럭시S8', '갤럭시S8+'는 스마트폰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으로 모바일 라이프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독창적인 인피니티 디스플레이(Infinity Display)다. 좌우 측면에 적용된 '듀얼 엣지 스크린'은 매끄러운 곡선을 이루며 편안한 그립감과 차원이 다른 몰입감을 선사한다. 게임이나 영화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기기에 최적화된 18.5:9 비율의 크고 시원한 디스플레이는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각적 즐거움을 전한다.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지능형 인터페이스 '빅스비(Bixby)'는 스마트폰과 사용자 간의 새로운 소통방식을 제안한다. 음성, 터치, 카메라 등 다양한 입력 방식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빅스비는 사용자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고유의 강력한 성능도 놓치지 않았다. 세계 최초로 10나노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고 지문·홍채에 이어 얼굴 인식까지 세 가지 생체 인식 기능을 지원해 더욱 완벽한 보안성과 편리성을 자랑한다. 1200만 화소 듀얼 픽셀 후면 카메라와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는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빠르고 선명하게 매 순간을 특별하게 기록해준다.

삼성전자 **QLED TV**

## 컬러볼륨 100% 표현…맞춤 스마트 기능

삼성전자가 'QLED TV'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TV 시대'를 선도하며 세계적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크린 에브리웨어(Screen Everywhere)' 비전에 입각해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개인이 원하는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한다. 또 TV 시청 시간 외에도 사용자에게 의미 있고, 사용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융화돼 TV가 생활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TV의 기본인 최고의 화질 △집안 어디든 놓을 수 있도록 TV 설치의 자유를 주는 디자인 △사용자 개인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기능의 3가지 방향을 새롭게 제안했다.

삼성 QLED TV는 최신의 디스플레이 기술인 퀀텀닷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화질 기준인 컬러 볼륨을 100% 표현했다. 이로 인해 어떤 밝기에서도 색이 바래거나 뭉개지는 문제점 없이 정확한 색을 표현해 준다. 시야각 문제도 해결해 어느 각도에서 봐도 동일하게 색이 표현된다.

삼성 QLED TV는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공간과 조화를 이룬다. '투명 광케이블' 하나로 TV 주변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고, 외부 기기를 자동 인식해 첫 화면에서 모든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밀착 월 마운트'로 TV와 벽 사이의 틈을 거의 없애 벽걸이 TV를 깔끔하고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다.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 冷氣 더 빠르고 오래… 세계 첫 무풍냉방

'삼성 무풍에어컨'은 기존의 회오리 바람을 통한 강력한 냉방뿐만 아니라 바람 없이도 실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해 주는 '무풍냉방'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제품이다.



올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2017년형 무풍에어컨은 기존 대비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더욱 스마트하게 진화했다. 또한, 침실과 같은 개인 공간에서도 무풍냉방의 쾌적함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벽걸이형을 추가 출시함으로써 홈 멀티 구성이 가능해졌다.

무풍에어컨 스탠드형은 포물선 회오리 바람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쾌적 온도까지 빠르게 도달한 후, 에어컨 전면의 메탈쿨링 패널에 적용된 마이크로 홀을 통한 무풍냉방으로 쾌적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한다. 약 13만 5000개의 마이크로 홀과 냉기를 더 오래 머금게 해주는 메탈쿨링 패널을 통해 퍼지는 냉기는 균일한 온도 분포를 가능케 해 사용자들이 보다 쾌적하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어나오는 각도를 약 3도 기울어지도록 디자인한 '포물선 회오리 바람'과 바람이 부드럽게 나갈 수 있도록 공기저항을 줄인 '미라클 바람문'으로 더 넓게 빠른 냉방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를 배려한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디자인과 편리한 사용성 역시 돋보인다.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메탈 가공이 빚어낸 바람을 품은 듯한 부드러운 조형미는 공간의 품격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메탈 계열 컬러는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집안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연출해 준다.

삼성전자 **플렉스워시 세탁기**

## 전자동·드럼 하나로… 인체공학적 설계

삼성전자의 '3도어 일체형 올인원' 세탁기 '플렉스워시'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진화를 이룬 제품이다.



플렉스워시는 1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7'에서 최초로 공개되며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으로 따로 애벌 손빨래가 가능한 '액티브워시' 개발 과정에서 시작된 분리 세탁에 대한 고민을 해결했다.

상부의 3.5㎏ 전자동세탁기 '콤팩트워시'와 하부의 대용량 드럼세탁기 '애드워시'를 일체형으로 설계해 3도어 시스템을 완성했으며 기존 전자동과 드럼으로 나뉘던 세탁기 시장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제시했다. 또 세탁기 사용 특성상 가장 편리한 시야각과 동작 범위를 고려해 사용자가 대부분의 자세에서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완성했다.

플렉스워시의 인체공학적 디자인은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한 제17회 인간공학 디자인상에서 'Best of Best'를 수상한 데 이어 일본 도쿄 니혼대학교에서 개최된 아시아인간공학회(ACED) 주관 '2017년 인간공학 디자인상'에서도 그랑프리에 선정되며 특별한 디자인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상하부 일체형 구조로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냉·온수 각각 1개씩의 급수 호스와 1개의 파워 코드를 사용해 설치가 편리하며 세탁기 조작부 역시 1개로 구성돼 있어 보다 쉽게 세탁 과정을 조작할 수 있다.

LG전자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 사각지대 최소화… 360도 깨끗한 공기

LG전자 퓨리케어 360°공기청정기(모델명: AS281DAW)는 전용면적 91㎡(약 28평)로 LG 공기청정기 중 청정면적이 가장 넓은 제품이다.

원기둥 형태로 위쪽과 가운데에 360도 구조로 설계한 흡입구와 토출구를 각각 적용,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360° 청정'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어린아이들의 활동 공간을 고려해 아래쪽 토출구에서 높이 1m 미만의 공간에 집중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는 아이케어 기능도 탑재했다.



이밖에도 먼지 입자의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 1㎛는 1백만분의 1m) 이하인 극초미세먼지까지 감지할 수 있는 PM1.0 센서로 공기 오염도를 측정해 상단의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고 공기 상태에 따라 풍량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6단계 토털케어 필터 시스템을 장착해 △큰 먼지 △황사·초미세먼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생활냄새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 △스모그 원인 물질들을 제거하는 기능도 갖췄다. 고객들은 외부 커버만 분리하면 원통형 구조의 필터를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다.

이 제품은 한국공기청정협회로부터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5대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성능 인증을 받았으며,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성능에 대해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천식알레르기협회(AAFA), 영국 알레르기협회(BAF)와 한국 천식알레르기협회(KAF)로부터 각각 인증받았다.

LG전자 **디오스 얼음정수기 냉장고**

## 얼음정수기+냉장고… 블루투스 음악까지

LG전자의 디오스 얼음정수기냉장고는 824리터 용량의 '매직스페이스' 냉장고에 얼음정수기를 결합한 융복합 냉장고다. 사용자는 냉장고와 정수기를 따로 놓을 필요가 없어 효율적인 주방 공간 사용이 가능하고, 냉동실을 열지 않아도 시원한 얼음을 바로 먹을 수 있다.



이 제품은 정기적인 케어 서비스와 3단계 안심필터 등을 통해 깨끗한 물과 얼음을 제공하며, 출수구의 높이를 25㎜ 높여 길다란 컵을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또 얼음정수기 상단의 터치 패널에서 120㎖, 500㎖, 1ℓ 중 원하는 용량 버튼을 터치한 후 레버를 누르기만 하면 선택한 용량만큼 출수되는 정량 급수 기능도 있다.

이 제품은 '매직스페이스' 면적이 기존 제품 대비 14% 넓어 음식물을 넣고 꺼내기도 쉽다. 매직 스페이스 도어를 여닫을 때 자동으로 접히는 '오토 와이드 테이블(Auto Wide Table)'을 탑재해 사용 편의성도 높였다. 또 '매직스페이스'를 여는 버튼이 문 아래쪽에 숨어 있는 '히든 버튼'을 적용했으며 , 도어 핸들도 기존 곡면에서 각진 스퀘어 형태로 바꿔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블루투스 스피커도 냉장고 상단에 탑재돼 있어 사용자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의 음악을 무선으로 즐길 수 있다.

자동차 기아자동차 **니로 PHEV**



## '하이브리드+전기차' 친환경 SUV 선봉장

기아자동차가 국내 대표 친환경차 모델 '니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을 추가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15일 국산 SUV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출시해 국내 친환경 SUV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니로 PHEV는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의 장점을 결합해 주유시 총 840㎞의 항속거리를 내는 차세대 친환경차다. 고효율의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시 전기 모드만으로 최대 40㎞까지 주행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모드 주행 800㎞를 포함해 총 840km의 장거리 주행이 가능해진 셈이다.

아울러 최고출력 105마력(ps), 최대토크 15.0㎏f·m의 카파 1.6 GDi 엔진과 최고출력 60.5마력(44.5kW), 최대토크 17.3㎏f·m(170Nm)의 고효율 영구자석형 모터 시스템을 적용했다. 최고 합산출력 141마력, 최대 합산토크 27.0㎏f·m로 강력한 동력성능을 구현했다. 연비는 복합 휘발유 기준 18.6㎞/ℓ, 복합 전기 기준 5.1㎞/kWh다.

니로 PHEV는 △앞뒤 범퍼의 블루 컬러 포인트 △사이드 도어 크롬 가니쉬 △반광 크롬이 적용된 라디에이터 그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용 엠블럼 등으로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과 외장 디자인을 차별화했다. 트렁크 공간은 메인 배터리와 서브 배터리를 분산 배치해 여유 공간을 생산했다. 골프백과 보스턴백 각각 2개씩 적재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다.

가격은 △프레스티지 3305만 원 △노블레스 3535만 원이다. 프레스티지 트림은 정부 보조금 500만 원 반영시 2000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다.

은행 KB국민은행 **생활금융 플랫폼 'Liiv'**

## 실물 현금거래 없는 스마트한 생활 구현




KB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 출시한 생활금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Liiv(리브)'가 11개월여 만에 가입고객 200만 명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리브는 일상생활 속 금융서비스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이다. 더치페이, 모임 회비 관리, 경조사 서비스 등 간편금융과 생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물 현금거래가 없는 스마트한 자금관리를 일상생활 속에 구현했다.

더불어 지점 방문이 필요 없는 가입 절차와 공인인증서, 보안매체 없이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이용할 수 있어 모바일 사용자 환경에 편리함을 더했다.

특히 계좌번호 없이 상대방 이름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리브머니보내기', 최대 90% 환율 우대를 제공하는 '리브환전' 등 대표적인 간편금융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 카드 없이도 이용 가능한 현금 출금이나 교통카드 기능은 이용자의 지갑 두께를 한결 얇게 만들고 있다.

국민은행은 리브 가입고객 200만 명 달성을 기념해 다음 달 8일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고객 8000명이 참여하는 'KB리브&락스타 콘서트'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나 리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신속히 반영하고 타 서비스와 차별화된 리브만의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며 "모바일·비대면 금융시장에서 국민은행의 선도적 위치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올포비즈 예금**

## 기업고객 비대면전용…우대금리 쏠쏠




IBK기업은행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인 i-ONE뱅크(기업)에서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 거치식 상품인 '#All4biz(이하 올포비즈)' 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올포비즈 예금은 실세금리 정기예금과 복리맞춤채권 상품으로 기업당 100만 원 이상 5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1년 만기 상품의 고시금리는 1.10%로 추가 상품가입 및 거래실적 충족 여부에 따라 실세금리 정기예금은 최대 0.55%포인트, 복리맞춤채권은 최대 0.70%포인트 우대 금리가 제공된다.

또한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기업에 제공되는 'One-Stop 컨설팅' 우선 지원 △사업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한 'IBK상권정보서비스' 무료제공 △IBK POS-뱅킹 서비스'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와 같은 기업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7월 말까지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한 1년 만기 복리맞춤 채권에 가입하고 1건 이상의 교차판매 실적이 인정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최대 연2.00%의 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금리우대와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i-ONE뱅크(기업)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면채널 상품 대비 높은 우대금리와 기업특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라고 말했다.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리리코스 마린 링클 쎄라 앰플**

## 시간을 역행하는 女優들의 동안비법



아모레퍼시픽의 '리리코스 마린 링클 쎄라 앰플'은 표정 및 노화 주름을 동시에 케어하면서 어려보이는 동안 인상을 만들어준다.

올 1월 출시된 상반기 신제품으로, 바다 달팽이에서 착안한 모사 펩티드(Peptide) 성분인 '마린 링클 쎄라™'가 표정을 지을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얼굴 근육의 수축을 억제해 일반 노화 주름보다 깊게 자리잡은 표정 주름을 효과적으로 케어한다. 또 '아데노신'이 함께 함유돼 있어 노화 주름과 미세한 잔주름 등 얼굴 주름을 전방위적으로 케어해 어려보이고 온화한 인상을 만드는 걸 돕는다.

이 외에도 더욱 강력한 안티에이징 케어를 위한 엄선된 성분만 담았다. '마린 콜라겐', '해양심층수', '마린 플라센타™' 등 리리코스의 대표적인 마린 성분을 강화하고 아모레퍼시픽의 5가지 특허성분을 통해 탄탄하고 건강한 피부를 가꿔준다.

기존의 주름 개선 기능뿐만 아니라 추가로 미백 기능 성분 '니아신아마이드'가 함유돼 더욱 환하게 돋보이는 인상을 선사한다.

고보습 주름 개선 기능성 앰플 '마린 링클 쎄라 앰플'(앰플 7㎖*5+마스크 25g*5, 13만5000원대)은 주요 홈쇼핑 채널과 아모레퍼시픽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식품 농심 **참치마요큰사발**

## 입소문 난 참치마요소스, 이번엔 라면!




농심의 '참치마요큰사발'은 밥 위주인 참치마요(참치+마요네즈) 시장에 라면을 적용해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게 만든 제품이다.

참치마요큰사발은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용기면 형태로 출시됐다. 물을 붓고 4분간 기다린 후 포장지에 있는 네 개의 구멍을 뚫어 물을 따라 버리고 스프를 비벼 먹으면 된다.

참치마요맛의 핵심은 액상 형태의 참치마요 소스다. 고소하면서 달콤 짭조름한 참치마요맛을 소스에 그대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고추냉이, 가쓰오 추출물, 후추가 들어가 훨씬 더 풍성한 향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참치마요큰사발의 인기는 온라인 망을 타고 확산했다.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소개된 참치마요큰사발 출시 콘텐츠에는 약 1만 4000명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등 초기 반응이 뜨거웠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도 각각 1000건이 넘는 시식 평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싸한 고추냉이나 고소한 김, 참치 통조림 등을 추가하거나 얼음을 넣어 차갑게 먹는 등 본인만의 '모디슈머' 레시피를 개발, 온라인에 공유 중이다.

농심은 참치마요큰사발이 인기를 더하면서 제품 판매를 최근 전 유통채널로 확대해 7월부터는 전국 대형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롯데제과 **요하이, 유산균 쇼콜라**

## 김치 유산균이 살아있는 웰빙과자




롯데제과의 유산균 비스킷과 초콜릿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요하이는 최근 마니아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유산균 과자의 대표 브랜드로, 비스킷 사이에 그릭 요거트 크림이 들어있는 샌드 형태의 제품과 웨이퍼, 초코볼 형태의 제품으로 구성됐다. 이들 제품에는 특허받은 식물성 김치 생유산균이 2억 마리 들어 있다.

이와 함께 유산균 쇼콜라는 초콜릿 속에 살아 있는 유산균이 함유된 제품이다. 밀크초콜릿에는 프로바이오틱스로 인정된 유산균 2종(서모필루스·플란타룸)이 한 갑당 20억 마리가 함유돼 있고, 아몬드 초코볼에는 살아 있는 유산균이 10억 마리가 함유돼 맛과 영양이 좋다.

이 제품들은 롯데제과, 롯데중앙연구소, 한국유산균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유산균 제품으로, 액상 타입의 기존 유산균 발효유와 달리 냉장 보관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취식과 보관이 용이하다. 또 때와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맛있는 비스킷·초콜릿 등과 함께 먹을 수 있다.

한편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1500억 원대로 성장할 만큼 시장 가능성이 크다. 과자시장에도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바람이 불고 있어 웰빙 과자를 선호하는 마니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 커피·설탕·크림 황금비율 '40년 노하우'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골드'는 언제 어디서나 누가 타도 커피믹스 고유의 맛을 표현해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가 1989년 출시 이래 커피믹스 시장에서 줄곧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던 비결은 황금 비율에 있다. 동서식품은 40여 년의 기술력으로 커피·설탕·크림의 황금 비율을 구현한 것은 기본이고, 고급 원두를 엄선해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해 맛을 만들어냈다.

또 동서식품은 소비자의 다양한 음용 습관을 고려해 트렌드에 맞는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5월에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의 커피믹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해 '맥심 모카골드 라이트'를 출시했다.

맥심 모카골드 라이트는 기존 맥심 모카골드 대비 당류를 25% 줄여 깔끔한 맛을 강조한 제품이다.

기존 맥심 모카골드의 커피·설탕·크림 배합을 새롭게 해 보디감과 밸런스를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동서식품은 깔끔한 맛의 맥심 모카골드 라이트, 진하고 부드러운 맛의 맥심 모카골드, 무지방 우유를 넣어 부드럽고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골드' 등 3종의 커피믹스 라인업을 구성해 소비자들이 기호와 입맛에 따라 커피믹스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야쿠르트 **콜드브루 by 바빈스키**

## 출시 1년 만에 1600만개 판매 '빅히트'




한국야쿠르트의 '콜드브루 by 바빈스키'는 출시 1년 만에 약 1600만 개가 판매되며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야쿠르트 콜드브루의 성공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효한 점은 그간 RTD(Ready To Drink) 커피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된 신선함이었다. 콜드브루는 그해에 수확한 햇원두만을 원료로 매일 로스팅 후 10일 이내로만 유통되는 신선 커피다. 이는 그간 시중에서 유통되는 RTD 커피들이 1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유통기한을 정한 것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특히 야쿠르트 아줌마가 매일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편리함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여기에 커피숍 대비 절반 수준의 가격과 국내 RTD 커피 최초로 '텀블러형' 디자인을 패키지에 도입한 것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국야쿠르트는 콜드브루 라인업을 더욱 확대했다. 올해 3월 선보인 '마카다미아 라떼'는 견과류의 황제로 불리는 마카다미아 특유의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신선한 콜드브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또 '다크'는 보다 진하게 콜드브루 커피를 즐기고 싶은 소비자를 위해 태어났다. 기존 아메리카노 대비 커피 추출액 함량을 약 10% 늘리고 로스팅도 강하게 했다.

SPC삼립 **프리미엄 햄 '비어슁켄'**

## 독일 정통식 콜드햄…맥주랑 찰떡궁합




SPC삼립이 4월 말 편의점에 출시한 프리미엄 햄 '비어슁켄'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SPC삼립의 프리미엄 육가공 자회사 그린슈바인이 내놓은 정통 독일식 햄인 비어슁켄은 독일어로 '맥주처럼 많이 먹거나 맥주와 함께 먹으면 즐거운 햄'이라는 뜻이다.

비어슁켄은 돼지고기 통살을 넣어 부드러우면서도 고기 씹는 식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차갑게 먹는 독일 정통 콜드햄 타입으로 빵이나 크래커에 얹어 간단한 간식으로 즐기거나 시원한 맥주와 함께 곁들이면 고급 안주로도 손색이 없다. GS25에서 판매되며 권장 소비자가격은 4900원이다.

비어슁켄은 출시 후 한 달 만에 3만 2000개가 팔렸다. 혼술을 즐기는 30~40대 남성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SPC삼립 관계자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차갑게 즐기는 비어슁켄의 판매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6월 중에 정통 독일식 소시지 2종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GS25에서는 30일까지 비어슁켄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햄과 곁들어 먹기 좋은 크래커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홈쇼핑 CJ오쇼핑 **VW베라왕**

# 모던한 디자인에 고급 소재로…패션·언더웨어·침구류 진출



뉴욕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베라왕'은 CJ오쇼핑을 통해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VW베라왕'의 의류와 잡화를 시작으로 언더웨어, 침구를 차례로 선보이며 CJ오쇼핑의 올 상반기 히트상품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뉴욕 출신의 디자이너 베라왕은 기성복과 신발, 아이웨어, 향수, 다이닝웨어, 주얼리, 침구, 페이퍼(지류) 등으로 활동영역을 꾸준히 넓히고 있다.

CJ오쇼핑은 2015년 국내 처음으로 '베라왕'과 단독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VW베라왕(패션)', '베라왕 인티메이츠(VERA WANG INTIMATES·언더웨어)', '베라왕 홈(홈 인테리어)'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 라인업을 선보이며 2016년 한 해 총 840억 원의 주문금액을 달성한 바 있다. 특유의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살아있는 프리미엄 상품을 소개한 점이 '베라왕'의 성공 요인이라고 CJ오쇼핑 측은 설명했다.

CJ오쇼핑 패션기획팀 이화겸 팀장은 "올 하반기에도 소재와 디자인을 통해 베라왕만의 감성을 담은 차별화된 프리미엄급 잡화, 언더웨어, 침구류 신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활용품 SK매직 **WPUA400C 정수기**

# 중금속 검출 걱정 없고 자외선으로 99.9% 살균



생활가전 전문기업 SK매직은 직수형 정수기 시장 1위 자리를 지키는 데서 나아가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등 신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SK매직은 직수로 깨끗한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아이스메이커 '슈퍼아이스'와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을 취수구에 적용해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한 '슈퍼S에디션' 정수기를 출시했다.

슈퍼아이스는 스테인리스 에바를 적용해 중금속 검출 걱정이 없고 아이스룸을 하루에 2번 3시간 동안 UV로 99.9% 살균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슈퍼S에디션 정수기는 디자인과 살균력을 강화, 2시간마다 1번씩, 하루에 12번 UV로 살균해 취수구 쪽 세균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렌털 핵심 제품인 공기청정기도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 이번에 출시한 '슈퍼L 청정기'와 '슈퍼I 청정기'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청정 시스템이 탑재돼 스스로 실내 공기를 측정, 판단, 계획, 작동해 실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제품이다.

장마철을 대비해 의류건조기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매직은 전기식 '의류 건조기'를 출시하며 건조기 시장에 진출했다. 이 제품은 히터식 건조방식으로 세균까지 살균해주며, 아기옷 등을 편리하게 건조할 수 있는 특별 건조 코스, 다림질이 필요한 의류를 알맞게 건조해주는 코스 등 15가지 코스가 있어 의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맞춤 건조가 가능하다.

제약 동아제약 **베나치오**

# 생약 추출물로 상복부 팽만감·소화불량 증상 개선



동아제약의 위운동 소화제 베나치오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약효로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신체형 장애 증상 중 많이 나타나는 것이 소화불량이다. 소화불량은 주로 상 복부 중앙에 소화장애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속 쓰림, 조기 포만감, 만복감, 팽만감, 구역, 구토 등을 유발한다. 일시적이거나 만성적인 소화불량 증상이 지속되면 음식물을 먹을 때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베나치오는 하루 세 번 식후 복용으로 식욕부진, 상 복부 팽만감 등 소화불량 증상을 개선시킨다. 주성분은 창출, 육계, 회향 등 각종 생약 추출물이다. 창출, 육계, 건강, 진피의 경우 떨어진 위의 소화기능을 강하게 하고 배출기능을 회복시키며, 회향은 간에서 생성되는 소화액인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고 소장의 소화 흡수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베나치오는 많은 양을 마시기 힘든 노인과 여성들에게 적합한 20ml 제품과 가루나 알약 형태의 소화제와 함께 복용하기 좋은 75㎖ 두 가지 제품이 나와 있다.

비타민하우스 **시베리안 차가버섯**

# 세포 면역기능 활성화 탁월… 러시아 완제품 직수입



건강기능식품기업 비타민하우스의 '시베리안 차가버섯'이 홈쇼핑 방송에서 연이어 매진되며 주목받고 있다.

차가버섯은 살아있는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야생버섯으로 자작나무의 영양을 흡수해 나무 속에서 10년, 밖으로 껍질을 뚫고 나와 총 15~20년을 자란다. 북위 45도 이상의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자작나무에 기생하기 때문에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이 최대 산지다. 특히 이곳에서 자라는 차가버섯의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

차가버섯은 다른 버섯에 비해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돼 있는데 베타글루칸은 세포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러시아와 시베리아 사람들은 16세기부터 차가버섯을 민간요법으로 이용해왔다고 한다.

비타민하우스의 '시베리안 차가버섯'은 신선도 유지와 품질관리를 위해 러시아 현지 제조원에서 모든 제조공정을 거친 완제품을 직수입한 제품이다. 차가버섯의 대중화를 위해 뛰어난 기술력의 러시아 현지 제조원을 수배한 결과 최고 품질로 인정받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차가버섯을 12배 농축해 유용성분을 최대로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골프용품 뱅골프코리아 **롱디스턴스 라이트**

# 세계 초경량 무게 209g 가볍게 스윙 스피드 업



뱅골프코리아(대표이사 이형규)가 세계 최고의 초경량, 고반발 드라이버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게가 209g, 반발계수는 0.962까지 끌어 올렸다. 장타에 목숨(?) 건 골퍼들에게 여간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최고 고반발 클럽 기술 보유업체인 뱅골프는 4세대 우주항공기술을 응용한 WOM공법으로 골프 역사상 세계 초경량 클럽을 개발해 골프클럽 경량화에 성공한 골프용품전문기업.

초고반발이면서 최경량화는 지극히 어려운 기술 중 하나. 그런데 뱅골프는 롱디스턴스 라이트 드리어버를 209g으로 상용화하면서 독보적인 4세대 따르면 100명의 아마추어에게 일반적인 평균 스펙으로 스윙을 했을 때 크거나 작은 슬라이스 구질이 85% 정도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각각 다시 스윙 웨이트를 3단계 낮추어 가벼운 클럽으로 테스트 했을 시 30%로 슬라이스가 줄었고, 또 다시 스윙웨이트를 3단계 낮추었을 시 단 2명을 제외하고는 슬라이스가 없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이 스윙웨이트가 낮고 무게가 가벼우면 헤드가 열려 맞지 않고 스퀘어로 맞는 확률을 높일 수 있어서 슬라이가 없어진다는 결론이다.

뱅 롱디스턴스 라이트 드라이버는 스윙웨이트가 B2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가 약한 골퍼도 가볍게 스윙할 수 있을 정도로 무게감은 기존의 절반 정도로 느껴진다

클럽의 무게가 가벼우면 스윙이 쉽고 스윙이 쉬우면 골프클럽을 마음껏 휘두르기 때문에 헤드스피드가 빨라져서 비거리가 많이 나간다. 이로 인해 헤드가 무거워 열려 맞던 골퍼들은 헤드가 임펙트 때 스퀘어로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방향성과 비거리를 더욱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이컴퍼니 **웽거(WENGER)**



# 스위스 다이버 시계 '시포스' 3년간 국제 무상보증 서비스

124년 역사의 스위스 브랜드 웽거(Wenger)의 한국 공식 수입유통사인 코이컴퍼니에서 가성비 높은 스위스 메이드 다이버 시계, 시포스(Seaforce) 컬렉션을 소개한다.

이 시계는 43㎜ 사이즈의 스틸 케이스 안에 역회전을 방지하는 베젤(Bezel)과 슈퍼 루미노바(Super Luminova) 인덱스가 탑재됐다. 다이버 시계답게 스크류 크라운을 적용한 200m 방수와 크로노그래프 기능도 포함됐다. 빨강색의 푸시 버튼은 남성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과 매치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시포스 컬렉션은 3년간의 국제 무상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라면세점 서울점·두타면세점·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JTO)·SM면세점 인천공항점 및 대구백화점을 비롯한 전국 웽거 공식 판매처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한편 1893년 스위스 들레몽 근처에 있는 코테텔르에서 나이프 공장을 시작한 웽거(WENGER)는 1997년 워치 메이킹의 수도인 빌의 중심가에 웽거 와치 에스에이(SA)를 설립하고 2015년에는 들레몽에 워치 메이킹 센터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스위스 아미 나이프' 생산으로 얻은 첨단 기술 노하우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시계를 선보이고 있다.

종근당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 국내 최다 19종 함유… 장용성 캡슐로 살아서 장까지

종근당의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프리락토 4종'은 균주와 제형을 다양화한 맞춤형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장내 세균이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과 면역력이 약화된 현대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준다.

'프리락토 프리미엄 장용캡슐'과 '프리락토 베베'는 장내 다양한 유산균이 보급되도록 국내 최다인 19종의 유산균을 함유한 제품이다. 두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넣은 신바이오틱스 제품으로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을 활발하게 해 준다.



프리락토 프리미엄 장용캡슐은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장용성 캡슐을 적용해 위산 및 담즙산에 취약한 프로바이오틱스의 단점을 보완했다. 또 프리락토 베베는 맛있게 씹어먹을 수 있는 츄어블정 타입의 제형이다.

분말 형태의 '프리락토'와 '프리락토 키즈'는 소비자 연령대에 따라 적합한 유산균을 이상적으로 배합한 제품이다.

한미약품 **나인나인정**

# 한국인 결핍 영양소 1위 '비타민D' 하루 한알로 해결

한미약품이 최근 출시한 종합 미네랄비타민 영양제인 '나인나인'은 국내 출시된 종합영양제 중 가장 많은 성분(28종)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으로 영양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육체피로 회복, 병중·병후 비타민 공급, 눈·뼈 건강 등에 도움을 주는 이 제품에는 비타민D 일일 권장 섭취량 750IU가 함유됐다.



한국인 결핍 영양소 1위인 비타민D는 혈중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하며,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의 성장을 돕고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D 부족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자가면역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인나인에는 비타민D를 포함해 비타민13종, 미네랄 12종도 함유됐으며 생리활성 성분인 콜린타르타르산염, 오로트산수화물, 우르소데옥시콜산 3종도 들어 있다. 콜린타르타르산염은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의 구성요소이며, 오로트산수화물은 세포의 재생 과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우르소데옥시콜산은 간 담즙을 생성한다.

아사가오골프 **프라우디아 24K GOLD**

# 초고반발 티타늄 소재 이젠 비거리도 자신감



역시 남자는 비거리. 필드에 나서면 골퍼들의 소원은 시원스럽게 한방 날리는 것이다. 프로골퍼처럼 흉내 내서 온 힘을 동원해 샷을 날리지만 비거리는 시원치가 않다.

사실 비거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키가 크고 근력이 좋은 사람이 유리하다. 여기에 자신에게 맞는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골퍼들은 수시로 드라이버를 바꾼다. 오직 장타만을 위해서. OB(아웃 오브 바운스)가 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남보다 거리가 더 나면 그것으로 대만족이다.

초고반발 명품클럽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아사가오(대표이사 이민·www.asagaogolf.co.kr)가 '프라우디아 24K 골드 리미티드 에디션'(500PCS)을 출시해 골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클럽은 프리미엄 클럽만을 고집해온 아사가오의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고강도 경량 티타늄인 'XAT902'를 개발해 반발계수 0.94 이상의 초고반발 성능으로 이전 모델보다 한층 진화된 성능을 갖추고 있다.

프라우디아 24K 골드 리미티드 에디션은 소울 부분에 '아사가오'만의 자개 무늬를 레이저로 각인해 웅장하고도 우아한 세련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아사가오만의 공법인 '2피스 정밀 주조 & 페이스 컵'을 적용해 안정적인 스윙 밸런스를 실현하였다. 또한 솔 내부에 2개의 웨이트 바를 장착한 저중심 설계로 비거리 확보에 이상적인 탄도를 만들었으며 페이스의 유효타구 면적을 넓혀 방향성을 향상시켰다.

프라우디아 24K 드라이버는 비거리가 아쉬운 시니어 골퍼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이 클럽은 파워가 약한 중·장년 골퍼들을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치기 편하다. 특히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시켜 비거리를 늘려준다는 것이 아사가오 측 설명이다.


박현주 회장

# 이 남자가 20년 전 뿌린 '투자 DNA'

## 미래에셋 창립 20주년

### 1997년 자본금 100억으로 문 열고
### 국내 첫 뮤추얼 펀드 '박현주 1호' 시작
### M&A·해외 부동산 등 투자 확대
### 20년 만에 총 자산 354조 원 성장
### '성장스토리' 세계 명문大 교재 채택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30대 한 청년이 잘 다니던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서울 강남의 조그마한 사무실에 벤처캐피털회사를 차렸다. 이후 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 증권사도 줄줄이 오픈했다. 당시 이 회사들이 먼 훗날 국내 1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거느린 대기업집단(그룹)이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1997년 7월 100억 원의 자본금과 함께 '미래에셋벤처캐피탈'로 시작한 미래에셋이 내달 1일이면 20살이 된다. 창업 20년 만에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업계 1위 계열사를 대거 거느린 공룡 금융그룹이 됐다. 그룹 자산은 올 4월 기준으로 자산운용부문 110조 원, 증권부문 213조 원, 보험 부문 33조 원 등 총 354조 원에 달한다.

특히 1998년 국내 최초 뮤추얼 펀드인 '박현주 1호'를 선보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발매 몇 시간 만에 완판, 출시 7개월 만에 수익률 100% 돌파'라는 기록으로 미래에셋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줬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미래에셋대우 본사 사옥.

이미 국내 시장을 장악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KDB대우증권과 합병하면서 자기자본 기준 업계 1위(6조7000억 원)로 등극하며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 지분 흡수로 7조2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2020년까지 10조 원, 2025년까지 15조 원까지 자기자본을 확충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이 20년 만에 성공 신화를 창조할 수 있던 배경에는 박현주 창업주의 '투자 DNA'가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투자'라는 비즈니스 DNA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대안투자다. 해외투자의 경우 2013년만 해도 2조71732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6조4013억 원으로 3년 사이 3배가량 늘었다. 특히 2015년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2015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페어몬트 호텔을 5200억 원에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페덱스 물류센터·하와이 하얏트 리젠시 와이키키 비치&스파·아마존 본사 사옥·스테이트팜 오피스 빌딩을 비롯해 독일 쾰른 오피스 빌딩까지 투자금액은 무려 3조1400억 원에 달했다. 올 들어서는 호주 캔버라에 있는 오피스 빌딩도 3100억 원에 인수했다.

이 같은 미래에셋 성장스토리는 세계 유수 경영대 강의 교재로 채택되기도 했다. 2010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케이스 스터디로 미래에셋 성장 스토리가 채택, 지난해에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미래에셋, 파괴적 혁신 사례'라는 제목으로 기업 사례를 활용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흥국증권, 경쟁사 인력 팀단위 파격 영입

### 골든브릿지투자證 IB 대체 인력 6명
### 리테일 고객 대상 단기 채권 업무 특화
### 중개자문·부동산금융 등 경쟁력 강화

주원 사장 취임 이후 투자은행(IB) 부문을 강화하고 있는 흥국증권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체투자 인력을 전격 영입키로 했다.

초대형 IB와 특화 중소형사들로 증권업계가 빠르게 양분화되는 가운데 흥국증권은 IB 부문에 우수 인력을 영입해 특화증권사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태광그룹 흥국증권은 다음 달 3일 IB본부 산하 구조화금융팀을 신설하고 현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체투자팀 6명 전원을 영입한다.

구조화금융 업무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맞춰 채권이나 펀드 등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방안을 만들어주는 업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우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단기 채권을 만들어 파는 업무에 특화됐다. 금리 변동성이 높은 최근의 경우 장기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단기채에 비해 자금조달 비용이 과다 계상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흥국증권에 영입될 남궁환 대체투자팀장(부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입사 전 신한은행 때부터 줄곧 대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구조화금융 업무를 담당해왔다. 단순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자금 운용을 통한 캐시플로(현금흐름) 개선에 집중했다. 아울러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구조화금융 전문인력이 흔치 않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발생한 것으로 관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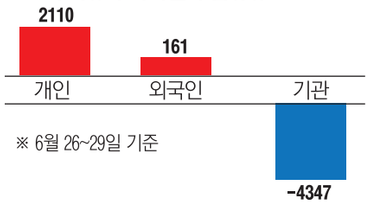
흥국증권 관계자는 "주원 사장의 IB 부문 강화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IB 부문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 인수·합병(M&A) 중개자문과 부동산금융 등을 포함해 IB 전방위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를 필두로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IB로 부상 중이다. 반면 하나금융투자와 KTB투자증권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은 항공기금융 등 IB 특화 전문사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 간 IB 인력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른 증권사 대비 리테일망이 취약한 흥국증권도 인력 쟁탈전에 합류한 것으로 관측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코스피 시장 투자자별 수급동향** (단위: 억 원)



※ 6월 26~29일 기준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억 원)

| 순위 | 종목명 | 투자금액 | 순위 | 종목명 | 투자금액 |
|---|---|---|---|---|---|
| 1위 | LG유플러스 | 1457 | 6위 | 삼성물산 | 264 |
| 2위 | 삼성SDI | 753 | 7위 | LG생활건강 | 256 |
| 3위 | POSCO | 689 | 8위 | KB금융 | 240 |
| 4위 | 하나금융지주 | 400 | 8위 | 엔씨소프트 | 240 |
| 5위 | 현대중공업 | 277 | 10위 | 삼성화재 | 207 |

# 2400線 돌파했지만 外人 순매수는 '주춤'

## 이주의 수급동향

### 28일까지 839억 순매도서 어제 매수세 전환
### LGU+ 1457억·삼성SDI 753억어치 사들여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로 장중 2400선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지수 상승을 이끌던 외국인 매수세는 주춤한 모습이다. 이번 주 코스피지수는 구글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3조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는 소식에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하루 만에 회복하면서 종가 기준 2395.66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61억 원을 순매수했다. 지난주 같은 기간 6124억 원을 사들인 것과 비교할 때 급격한 감소세다. 28일까지는 839억 원을 순매도하는 등 이탈 현상이 나타났지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9일 1000억 원 이상 사들이면서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번 주 외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LG유플러스(1457억 원)이다. 또 △삼성SDI(753억 원) △POSCO(689억 원) △하나금융지주(400억 원) △현대중공업(277억 원)을 많이 담았다. 이어 △삼성물산(264억 원) △LG생활건강(256억 원) △KB금융(240억 원) △엔씨소프트(240억 원) △삼성화재(207억 원) 등에 외인 매수세가 집중됐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센터장은 "외국인 순매수 감소는 일시적 현상이다. 한 주간 매수세가 줄었다고 해서 기존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변수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변화 폭이다. 경기 흐름으로 볼 때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6월 FOMC에서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하반기 한미 금리역전에 대한 자본 유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내 증시의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리 역전에도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낮다. 한미 정책금리차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위험 기피심리 변화도 매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최근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의 연내 통화긴축 가능성이 약화되고, 글로벌 교역 회복 속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기관은 NAVER(4621억 원)와 함께 △삼성물산(996억 원) △SK텔레콤(816억 원) 등을 대거 사들였다.

최두선 기자 sun@

# HMC투자證, 다음주 '현대차투자증권'으로 새출발

현대차투자증권

HMC투자증권이 다음 주부터 새 이름인 '현대차투자증권'을 사용하게 된다.

HMC투자증권은 30일 업무종료를 기해 기존의 회사명과 작별을 고한다. HMC투자증권으로서의 마지막 영업일인 셈이다. 다음 영업일인 7월 3일부터는 새 이름 '현대차투자증권'을 공식적으로 쓰게 된다. 10년간의 기다림과 노력 끝에 '현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회사명 변경은 오랜 기간 HMC투자증권의 숙원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이라는 든든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8년 현대자동차그룹이 신흥증권을 인수한 뒤 '현대차IB증권'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당시 '현대증권'을 가진 현대그룹이 상표권사용금지 가처분소송을 내면서 HMC투자증권으로 이름을 바꿔야 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해 현대증권이 KB금융에 매각되면서 '현대차'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회사 이름 변경은 별도의 행사 없이 조용히 치르기로 했다. 다만 회사명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교체 작업은 미리부터 진행했다. 16일에는 새 기업이미지(CI)를 확정하고 본사와 영업점의 간판을 교체했으며 관련 등기변경과 상표등록 등 절차도 마무리됐다.

내주부터 사용되는 현대차투자증권 간판은 증권가에서 유일하게 '현대'라는 이름의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회사 측은 이에 따른 '후광효과'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브랜드의 후광효과로 회사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회사명 변경을 '신뢰할 수 있는 증권사'로서 거듭나는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SGA솔루션즈 "랜섬웨어 대응 백신 있다"

〈페티아〉 〈자회사 바이러스체이스가 개발〉

## 페티아, 유럽 정부 시스템 피해 주고 다국적 기업 공격
## '패치 매니지먼트 솔루션' 함께 가동하면 효과적 감지

SGA솔루션즈가 계열사의 백신 소프트웨어로 유럽 전역에 확산하고 있는 랜섬웨어 '페티아(Petya)'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GA솔루션즈는 지난해 4월 흡수 합병한 바이러스체이서의 백신 프로그램과 패치 매니지먼트 솔루션(PMS)이 가동 중이면 랜섬웨어 페티아를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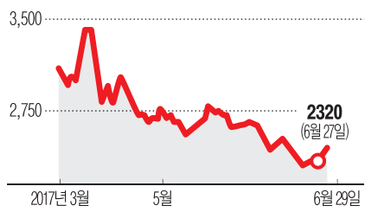
페티아는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등 유럽 기업 및 정부 시스템을 공격한 랜섬웨어로 최근 전 세계를 위협한 '워너크라이'와 비슷한 파일 공유시스템을 통해 퍼지고 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미 영국 런던의 세계 최대 광고회사 WPP, 프랑스의 건축자재 및 유리 제조기업 생고뱅, 러시아의 철강 및 석유기업 예브라즈와 로즈네프트 등이 영향을 받았다.

더불어 글로벌 식품업체 몬델리즈와 세계 최대 로펌 디엘에이파이퍼, 덴마크 종합기업 A.P. 몰러-머스크 그룹 등 다국적 기업이 주로 공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SGA솔루션즈는 바이러스체이서가 개발, 공급해 온 개인용컴퓨터(PC) 백신(바이러스체이서), 패치관리솔루션(패치체이서), 자료유출방비솔루션(다락)에 대한 사업과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다.

**SGA솔루션즈 주가 추이**
(단위: 원)




앞서 두 회사는 사업 제휴를 통해 기술적 통합 보안솔루션 제공을 위한 보안제품 라인업 확충, 영업망 확대 등 사업 전략을 갖춘 바 있다. 이후 합병으로 내부 조직 관리를 통한 수익성 위주 기업운영과 두 회사 간 기술을 융합한 신제품을 출시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최근 많은 보안업체들이 통합보안을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보안시장은 백신,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등 단위 기술을 가진 단품 솔루션 판매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SGA솔루션즈는 엔드포인트 보안 역량을 확보해 통합보안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랜섬웨어 공포가 재점화하면서 시장에선 이스트소프트, 파수닷컴, 이글루시큐리티, 라온시큐어, 안랩 등을 주목하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 다날, 우버·美 대기업과 모바일 인증 계약 체결

## 인증사업 매출 향상 기대
## '자동입력' 서비스도 호응

다날 미국법인이 우버와 익스페리안 등 대형 기업들과 신규 모바일 인증 계약(TCPA 방지솔루션)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섰다.

다날은 우버를 비롯한 미국의 금융권 및 최대 신용정보회사 및 위성방송 사업자 등 글로벌 기업들과 연이어 모바일 인증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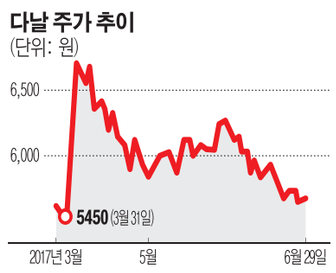
다날은 최근 계약을 완료한 우버(UBER)와 익스페리안 등 신규 기업들에 모바일 인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상반기 인증 건수 및 거래고객 증가에 힘입어 인증사업 매출의 급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날은 지난해 구글과 비자의 현직 임원을 영입하는 등 모바일 인증 사업의 초석을 다져왔다. 또 주요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인증 핵심 솔루션 관련 미국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

미국 기업들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고객정보보호 및 TCPA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5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최근 사례로 위성케이블 방송 사업자인 디시 네트워크(DISH NETWORK)는 TCPA 규정 위반으로 2억8000만 달러의 벌금이 실제로 부과됐다.

다날 측은 이번 디시 네트워크 벌금폭탄 사례로 TCPA 방지솔루션에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으며, 관련 매출은 지난해 대비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날 주가 추이**
(단위: 원)




더불어 통신사 정보를 통해 클릭 한 번으로 가입에서 구매단계까지 빠르게 진행해주는 다날의 자동입력(AutoFill) 서비스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웨스턴유니온, 뱅크모바일, 에퀴팩스와 같은 금융 서비스 기업들과 미국 최대의 위성 방송사 등 대형 기업들이 다날의 모바일 인증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날 관계자는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주요 고객사를 공개하기 어렵지만, 세계 최대의 검색 사이트와 카드사, 결제서비스 기업 등이 이미 인증 솔루션 도입 계약을 마치고 서비스 오픈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큰 폭의 실적 향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방콕은행과 오렌지 텔레콤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은 다날은 미국 내 TCPA 방지솔루션을 비롯한 모바일 인증 사업을 강화하고 전략적 사업 협의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투자자를 확보하면서 사업 확장에 대한 선도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크루셜텍,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인식 특허

## 손가락 반사광 감지 광학식… 커브드·플렉서블 패널 확장 가능

모바일 생체인식 솔루션 전문기업 크루셜텍은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인식 장치에 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크루셜텍의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인식 솔루션(DFS)을 구현하는 방식 중 광학식 지문인식에 관한 것이다. 투명 유기물질을 이용한 특수한 센서층이 손가락에 반사된 빛을 감지해 지문이미지를 읽어내는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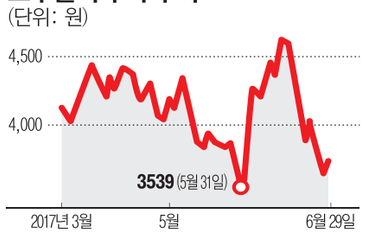
회사 측은 "유기센서층은 디스플레이 내부나 외부에 모두 들어갈 수 있으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적용될 경우 추후 커브드, 플렉서블 패널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FS는 기본적으로 지문을 인식하는 센싱 영역을 투명화해 디스플레이 위에서 터치와 지문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이다.

DFS는 손가락이 화면에 닿았을 때 지문 굴곡에 따른 정전용량의 차이를 측정해 지문 이미지를 얻는 정전용량 방식과 손가락에서 반사된 빛을 센싱해 음영에 따라 지문 굴곡을 얻어내는 광학식 모두 지원 가능하다.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인식 상용화를 진행 중인 글로벌 기업 가운데 정전식과 광학식 모두 높은 수준의 투과율, 지문 이미지 해상도, 인식률을 보이는 곳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셜텍은 향후 고객사 신규 모델의 스펙에 따라 최적화된 방식의 DFS를 공급할 계획이다.

**크루셜텍 주가 추이**
(단위: 원)




안건준 크루셜텍 대표는 "DFS의 빠른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국내 및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중국 고객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지의 반응도 좋아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시노펙스, 베트남 FPCB 공략

시노펙스가 연성회로기판(FPCB) 사업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베트남 기업의 설비 인수에 나섰다.

30일 시노펙스에 따르면 각종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FPCB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베트남 A사의 설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현지 자회사를 통해 체결했다.

이로써 시노펙스는 향후 베트남에서 성장산업인 FPCB 전후공정과 모듈공정을 일괄라인으로 구축했다.

시노펙스는 FPCB 제조설비 확충으로 생산능력을 증대하고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 그 동안 전자부품 모듈사업의 시너지 확보, FPCB부품소재 회사로의 턴어라운드를 예고했다.

시노펙스는 향후 3개월 내 베트남에서의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지호 시노펙스 사장은 "이번 베트남 FPCB 설비투자는 지난 10년간 자회사인 시노플렉스를 통해 FPCB 기술을 축적해 놓은 바탕 위에 현지에서 흑자 기반을 다진 후 A사 설비 인수를 통해 진출하는 것으로 회사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KGP, 위니테크놀러지 합병… IT 사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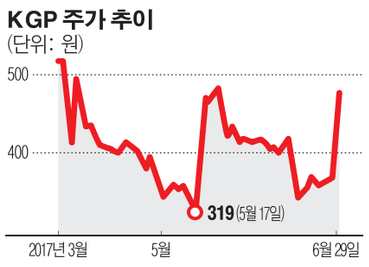
## 인공지능·스마트카 등 집중

KGP가 위니테크놀러지를 합병해 4차산업 관련 IT 사업 강화에 나선다.

KGP는 사업다각화와 조직 통합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니테크놀러지를 소규모 흡수합병한다고 30일 밝혔다.

위니테크놀러지는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사업과 자동차 블랙박스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약 2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 중 ICT 사업은 광통신산업 부문으로 △광통신 장비 및 시스템 △광통신 모듈 및 부품 △기타 광통신 장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KGP 주가 추이**
(단위: 원)




KGP 관계자는 "위니테크놀러지는 자회사 알에프윈도의 통신중계기 기술과 관련성이 깊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통신사업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위니테크놀러지의 자동차 블랙박스 제조 노하우와 영업력을 통해 스마트카 관련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전 세계 광통신 장비 시장은 2014년 기준 약 738억 달러(84조4000억 원)를 기록한 가운데, 2020년에는 약 924억 달러(105조 70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관계자는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ICT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합병으로 인공지능(AI), 스마트카 등 ICT 기술에 기반한 4차산업 관련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합병 완료 후 바로 조직개편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주현 기자 jooh@

# '가상화폐 초기투자' 시장에 1억달러 규모 헤지펀드 등장

## 美 판테라 "공공 블록체인 투자"

미국 투자회사인 판테라 캐피탈이 새로운 가상화폐의 초기 출시(ICO)에만 투자하는 1억 달러(1139억 원)의 헤지펀드를 조성했다고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30일 보도했다.

ICO란 새 가상화폐가 초기 투자금을 받고 해당 코인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시장에서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 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주식을 코인으로 받는다.

이 매체에 따르면 판테라 캐피탈은 앞으로 공공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가상화폐에만 1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판테라 캐피탈의 헤지펀드 등장에 따라 전체 ICO 시장이 6억 달러(약 6841억 원)로 성장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추정했다.

'판테라 ICO 펀드 LP(Pantera ICO Fund LP)'라는 명칭의 이 펀드는 이미 알려지지 않은 신규 투자자와 무명 벤처 캐피털(VC)로부터 35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해당 펀드가 2014년 초 판테라, 포트리스, 벤치마크 캐피탈 및 리빗 캐피탈이 공동 출자한 판테라 비트코인 파트너스(Pantera Bitcoin Partners)를 보완해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다.

ICO 시장에서는 최근 스테이터스와 시빅 등의 ICO가 진행됐고, 이틀 후 진행될 새 가상화폐 '테조스(Tezo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테조스는 거래 익명성을 강화한 지캐시(ZCASH)를 개발하고, 이더리움 DAO의 버그를 처음으로 발견한 블록체인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또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젝트이다. 김우람 기자 hura@

# 엘앤케이바이오메드, 호주 진출 척추 임플란트 20억 규모 공급

**엘앤케이바이오 주가 추이**
(단위: 원)




척추 임플란트 전문기업인 엘앤케이바이오메드가 호주 시장에 진출을 본격화한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호주 의료기기 업체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약 230만 호주달러(약 19억4000만 원) 규모의 1차 주문서(PO)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이달부터 초도 물량에 대한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며 태국, 베트남 등 해외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호주의 척추 임플란트 시장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프리미엄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 큰 시장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이번 첫 공급은 향후 호주시장 개척에 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른 업체와도 추가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어 현지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브레인콘텐츠 모바일 웹툰 '무툰' 손익분기점 돌파

## 오픈 8개월만에 영업익 흑자
## 5만3000여 명 회원 모집도

브레인콘텐츠가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인 '무툰'이 오픈 8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브레인콘텐츠는 국내 최초 무협, 액션 모바일 웹툰 플랫폼 무툰이 올 상반기 회원 수 및 콘텐츠 이용률 증가에 힘입어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무툰은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정식으로 오픈한 후 서비스 품질 개선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총 5만30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또한 월평균 23% 이상의 매출 성장을 통해 반기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됐다.

브레인콘텐츠는 황성, 묵검향, 고행석, 박인권, 김성모 등 주요 작가들의 3000여 타이틀의 작품을 보강하고, 내달 중 신규 인기작가 야설록, 사마달, 하승남 외 추가 웹툰 작품을 수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웹툰 업계 최초로 별도의 '커뮤니티' 서비스와 'e-book 콘텐츠'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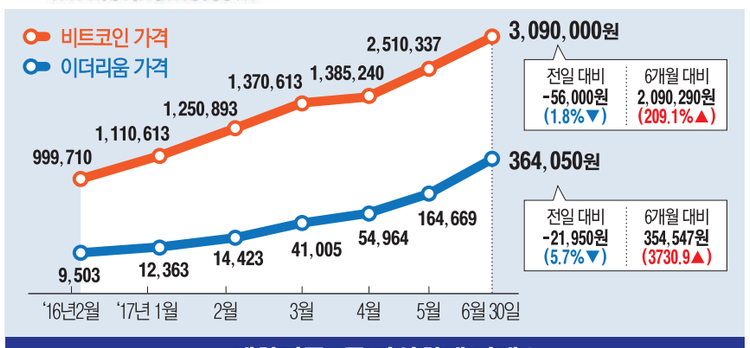
장대용 브레인콘텐츠 대표는 "무툰 플랫폼이 시장에서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계기는 서비스 장르를 무협과 액션으로 집중해 독자의 선택과 집중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라며 "동시에 기존 1980~90년 대를 풍미했던 추억의 만화들을 최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쉽고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점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무툰의 장점은 20~30대 독자들은 과거 작품성 있는 만화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40~60대 독자들은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세대를 아우르는 서비스가 무툰의 강점이자 매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경제경영연구소는 국내 웹툰 시장이 지난해 42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해 내년에는 연간 80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주현 기자 jooh@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7년 6월 30일, 08:00, K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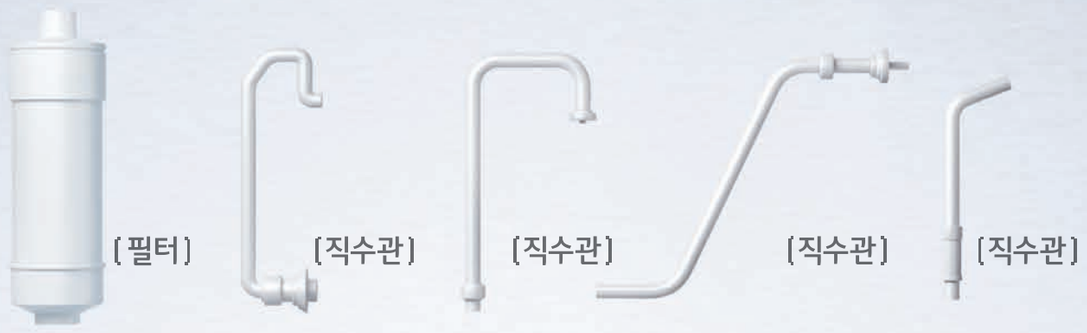



대한민국 1등 가상화폐 거래소

LG 70 Anniversary 미래를 보다 삶을 혁신하다

LG전자

왜 필터는 바꾸면서 직수관은 바꿀 생각을 못했을까?




# LG퓨리케어 정수기가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마침내 퓨리케어가 모든 직수관 무상교체로
직수가 흐르는 모든 길을 깨끗하게 바꿉니다



■ 1년마다
모든 직수관 무상교체

**| 직수관 교체로 깨끗함의 차원이 다른 직수 |**




**All 직수 방식** **퓨리케어만의 토탈케어 1.2.3**

**냉수. 온수. 정수**
**모두 저수조를**
**거치지 않는**
**All 직수 방식**

**| 1년마다 모든 직수관 무상교체 |** 매년 직수관 전체 무상교체
**| 2단계 셀프 살균케어 |** 1시간마다 UV-LED 자동 코크 살균(하루 24회)
**| 3개월마다 방문 살균케어 |** 3개월마다 헬스케어 매니저 방문케어

*온수직수관(자체 살균), 원수입수관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델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LG PuriCare™
퓨리케어 정수기